

임시번호로 태어나 아플 권리도 없는… “나는 누구입니까”

미등록 무국적 아동 5000명 ↑
출생신고 없이 신생아번호 받은
8세 미만 유·아동 6179명 달해
외국인 아동 인권 사각지대 방치
학대·착취 등 범죄 노출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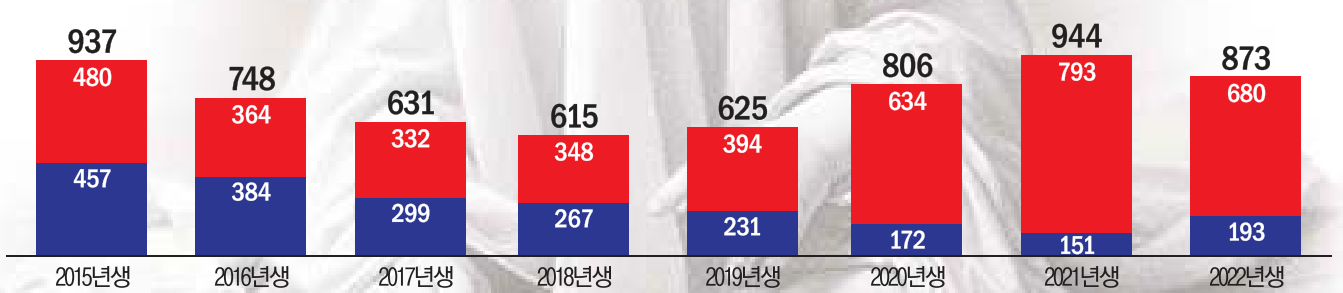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 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 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 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 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 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 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 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 의 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

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 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 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 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단위: 명, 2023년 6월 26일 기준)



※ 출처: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

그래픽 손미경 기자 000110

5078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방 접종 등을 이유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 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번호조차 받지 못한다. 결국 출생신 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5000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도 현재 국내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 인권 사각지대 보편적 아

동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차원이다. 2022 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출생 미등록 아동 수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 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보 육·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성인이 돼 서도 대통령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해야 하 고 해외 출국, 혼인신고, 사망신고 모두 불가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 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 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 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 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 인하고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 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내국인도 외 국인도 아닌 ‘무국적 유령아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고아보다 못한 현실… 영민이의 기본권, 국회가 나서야

▶1면서 계속

여권은커녕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 민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건 불가한 일이 었다. 재판 도중 판사 앞에서 “내 아이가 아니니 길에 버리겠다”고 말하는 정 씨에 게 아이를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 다.

차라리 영민이가 고아였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가 분명하지 않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고

어머니는 중국 국적인 영민이는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던 중 정 씨가 중국으로 강제 출국 되는 일이 발생했다. 뚜렷한 직장이 없던 정 씨는 친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종종 노숙 생활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 전취식을 하며 경찰에 신고된 것이다.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 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 슌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

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머무는 곳은 단기 아동 보호시설이다. 이미 지낼 수 있는 최대 기 간은 넘겼고,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퇴소 기간을 겨우 연장한 상황 이다.

이들은 정 씨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만 나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달래도 봤다. 검 사들도 정 씨가 DNA 검사를 받으러 가 는 길에 동행하고, 영민이 측 국선 변호사

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영민이 잘 좀 부 탁드린다, 잘 봐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모두의 노력에도 영민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 진학, 의료에서 권리 를 누릴 수 없다. 곧 어린이집에 입소할 나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다가올 감기· 독감 유행으로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 택을 못 받는다.

영민이의 번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 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 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 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 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 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 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민 이가 의료,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 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 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는 ‘있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한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제한 매입펀드
- 소상공인 경영담지 대출발기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휴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 경고 선택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미국채 금리 ‘마의 5%’ 넘나…가계·기업빚 뇌관 재각재각

〈10년물 기준〉

전문가,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연준의 긴축정책 전환 지연이
미국채 금리 상승 가장 큰 원인
전 세계 금융신평등 ‘빨간불’
중동리스크로 물가까지 자극

1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한 대형 증권사채권운용팀 회의실에는채권 트레이더 7명이 모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10회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선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모인 자리다. 회의실엔 긴장감이 흘렀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6%를 돌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기 때문이다.

국내 국채 3년, 10년물 금리도 각각 연 3.469%, 연 3.618%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가 3.6%선을 넘은 건 지난해 12월 초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채권 투자자로서 걱정이 수박에 없다. 한 대형운용사채권운용 최고투자전략가(CIO)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로 연 5.0%에 바짝 다가서는 것도 두렵지만,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금리 상단이 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 시장에 공포감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채권 투자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시장 금리의 신평등 역할을 한다. 미국의 피벗(Pivot·긴축 정책 전환)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중동 리스크와 미국채 금등 부담감으로 1.79% 급락했고, S&P500(-1.20%)과 다우존스30지수(-0.65%)도 내렸다. 미국 증시 충격 여파로 이날 국내 증시는 2% 넘게 하락했다.

美 긴축 확대 우려 잔존하던

지난해 ‘공포의 10월’과는 달리
전문가 7명 중 4명 “미국채 5%
일시적 터치 후 4% 후반 유지”

◇미국채 장기금리 왜 오르나=장기 금리를 올리는 장본인은 누구까.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목하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경로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5%로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연준 목표치(2%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의 변화)이 늦어질 것이라 예상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탄탄한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국채 발행 증가)를 확대해 물가가 쉽

리 잡히지 못하고 있다. 중동 불안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점도 긴축 효과가 작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 전쟁은 인플레이션, 연준 통화 정책 등 기존 약재가 아닌 작년 10월 중동 전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지정학적 약재인 만큼, 시장이 민감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동 지역 리스크로 물가가 자극받자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美 국채 5% 복귀 전망 우세=시장은 5% 금리를 다시 소환할까. 전문가들은 전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지난해 10월과 다르다고 얘기한다.

작년 말에는 금리 인하 기대보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반면,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끝났지만 시장에는 강력한 고용지표, 유가 상승, 중동 전쟁 등 금리 인하 시작이 꺼려지는 재료가 산적해 있다.

본지가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명은 ‘미국채 금리가 5%를 다시 넘기는 어렵다’고 했고, 4명은 ‘5%를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5% 수준을 지속하진 않고, 일시적으로 터치한 뒤 4.7~4.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채 상승에 따른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 레벨은 3% 후반대로 전망됐다.

한미 통화정책, 탈동조화 가능
시장선 “韓 먼저 기준금리 인하”
전문가들 “내릴 폭도 안보인다”
신평등프레드 확대 가장 우려

시장참가자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게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은은 지난해 1월 마지막 금리 인상 후 10회 연속 금리 동결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며 미국 통화정책과의 탈동조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금리인하를 시작한다’는 의미와 두 번째로 ‘연준이 금리인하를 연말까지 2차례 단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은 2회가 아닌, 1회 금리 인하만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이 총재의 발언을 전자로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분석이다.

서준식 숭실대 교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장기물들이 너무 앞서서 내려와 있는데, 한국의 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이지만, 한국은 금리를 더 올렸어야 했는데 가계대출 때문에 못 올렸다”며 “올린 룸(room, 공간)이 크질 못해서, 내릴 폭도 안 보인다”고 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미 연준이 6월 또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신호를 주면, 연준과 한은이 첫 번째 금리인하를 8월부터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의 두 번째 금리인하는 12월로 점쳐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또는 8월 이내 수거기를 지킬 수 있는 금리인하 마지노선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계부채와 환율 등 대수가 못 버티어서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7인,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지난해에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지금은 그 정도 아냐	미국 재정지출 여력 아직 남아 있어... 대선 국면까지 크게 줄기 어려워	지난해와 차이는 미국 재정적자 이슈로 팀 프리미엄 상승과 신평등등급 강등	한국 기준금리, 지금도 높은 수준 아냐... 가계대출 잠재적 위험 우려	연준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 있어... 한미 금리차 벌어질 가능성 커져	연초 시장에 너무 빨리 반영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되돌리는 상황	대외금리 대비 한국 상승폭 크지 않아... 미국채 5% 넘겨도 이상할 것 없는 구조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한수일 NH아מיד운용 채권운용부부장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	서준식 숭실대 교수 (전 신평등자산운용 CIO)	켈리 우드 슈로더자산운용 이사	한광열 NH투자증권 PB (전 채권 애널리스트)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

한광열 NH투자증권 PB는 “한국은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7년에도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국내 경제 상황에 악

재다. 장기 국채 금리는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금리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신평등프레드 확대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브리지론 시

장이 가장 위험하다”며 “브리지론 단계에서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는데 만기만 연장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보유한 금융사들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손민지 기자 handmi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평등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준공약속 못 지킨 건설사…‘57.7兆 PF폭탄’ 떠안나

건설업계 ‘4월 위기설’ 현실되나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준공 약정’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년째 지속된 분양 경기 저하와 조달 환경 악화로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준공 의무 미이행을 초래하는 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 수준이 낮아 부동산 호황기 대 거 몸집을 불린 책임준공 약정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사 20곳(시평 상위 40개사 중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공시한 20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약정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신세계건설(132.3%)로 확인됐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액은 3조140억 원으로, 이 중 1조9878억 원이 상환해야 할 대출 잔액으로 묶여 있다.

이어 DL건설 106.3%(2조5836억 원), 대우건설 104.7%(11조222억 원), 코오롱글로벌 90.8%(2조3522억 원) 순으로 높았다. 이는 상위 20개사의 매출액 대비 대출잔액의 평균 비율(64.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의 책임준공 PF 합산 대출잔액은 57조7170억 원에 육박한다.

몸집 불린 일등공신 ‘유동성 폭탄’

책임 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책임지고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PF 대주단의 대출금을 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상환해야 한다. 해당 대출 잔액은 준공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일시에 소거된다. 하지만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거나, 준공 시점까지 해소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많을 경우 공사비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공사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잔액이 많을수록 재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악성 미분양에 공사비 회수 차질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건설사가 보유 물건을 담보로 잡고 경매로 돌리거나 해당 물건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며 “또 준공 후 미분양이 50%를 넘는 경우라면 해당 물량을 건설사 보유분으로 돌려 분양을 완수하는 식으로 준공 책임을 지게 돼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경기도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를 995억 원에 인수했다. 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채무 995억 원을 떠안았다. 호반산업도 이현리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PF 채무 1150억 원을 인수했으며, SGC이앤씨는 원창동 물류센터의 PF 채무 4165억 원을 인수했다.

책임준공 약정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분양경기 저하, 조달환경 악화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협

부동산 호황기 맺은 ‘책임준공약정’ 부메랑
경기 저하·원자재값 인상 조달 악화로 지연
신세계건설, 매출 대비 잔액비율 132% ‘최대’

2023년 말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단위 : 원)

사명	대출잔액	매출액 대비 대출잔액(%)
현대건설	11조3051억	71.6
대우건설	11조2222억	104.7
GS건설	8조1219억	86.6
DL이앤씨	6조2759억	78.5
HDC현대산업개발	1조6176억	38.9
한화	2조8309억	53.1
DL건설	2조5836억	106.3
태영건설	2조6676억	82.4
계통건설산업	4122억	21.1
코오롱글로벌	2조3522억	90.8
서희건설	1425억	10.1
금호건설	1조3913억	63
동부건설	8492억	47.2
아이에스동서	6609억	47
KCC건설	8032억	42.1
한신공영	4535억	34.6
HL D&I	9966억	66.9
동원개발	5555억	75.4
신세계건설	1조9878억	132.3
SGC이앤씨	6847억	36.8
총계	57조7170억	64.5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도를 높이고 있다. 신용평가업계는 책임준공을 비롯한 PF 우발채무의 부실과 공사대금 회수 차질이 건설사들의 운전 자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들은 PF 우발채무가 과중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중견사들은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쌓아놓은 현금으로 버티는 상황”이라며 “만일 현금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PF 리스크 익스포저까지 높다면 신규 사업은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사도 ‘책임준공 리스크’ 전이

부동산 신탁사들 역시 책임준공으로 인한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57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완공이 예정됐던 공사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연

미준공пен 건설사 책임... 공사비 회수 차질
HDC현대산업개발 995억 채무 떠안기도
“시공사 책임집중 PF 위기 키운 원인” 지적

되며 신탁사에 책임이 전이됐다.

건설경기 악화 장기화면 연쇄부도

경기도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대주단 역시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월 중순 준공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미뤄지면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한 KB부동산신탁에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현장은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준공시키는 것이 책임준공 확약의 기본”이라며 “준공을 하더라도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데 의문이 생기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서 조정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사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는 건 건설경기 악화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연달아 보고서를 내고 PF 리스크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는 신탁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탁사들의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액은 2020년 말 8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7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당장 연내 만기를 앞둔 사업장도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탁 사업기간은 2년, 신탁사 책임 준공 마감기한이 준공 예정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전후 계약 건이 올해 만기가 집중된 것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부담을 겪는 사업장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리 기자 truth@·허지은 기자 hje@

‘워크아웃’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 PF사업장 절반 ‘시공사 교체·청산’

산업은행, 기업개선계획 논의

실사법인 “1조 자본확충 필요”
경영책임 이행...감자비용 차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100대 1 비율의 무상감자에 나선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 중 절반가량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경·공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6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운영위원회(18개 금융기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사 결과와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기업개선계획 초안에는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자본확충과 신규 신용공여 방안이 포함됐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 완전자본잠식(-6356억 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1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초안 주요 내용

- 대주주 감자 비율 100대 1, 기타주주 2대 1
-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 규모 약 1조원
(채권단 3000억원 출자전환, 대주주 7000억원 참여)
- 채권단, 태영건설 영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신규 보증 지속 지원
-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 중 30여 곳 시공사 교체 또는 청산
(본PF 사업장 40곳 중 10여 곳만 시공사 교체 또는 청산, 브리지론 PF 사업장 20곳 중 19곳 시공사 교체 또는 청산)

조원 수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계열주 포함 대주주(TY홀딩스)는 경영책임 이행을 위해 100대 1, 기타주주는 2대 1로 차등감자를 할 계획이다. 대주주는 대여금 4000억 원 등 기존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 전환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는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에 투입해 정상화 책임을 다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주주가 대규모 자본 확충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에 대한 대주주 경영권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대주주 감자와 자본 확충으로 기존 대주주 지분은 41.8%에서 60% 안팎으로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만 대주주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는 경영권 행사가 불가하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앞서 채권단은 태영건설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이 연이율 4.6%, 대출기한은 5월 30일을 조건으로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발생하는 손실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자금은 PF 하도급업체 결제 등 자금 미스매치로 인한 부족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의 처리 방안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PF 사업장 절반가량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절반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본PF 사업장의 경우 40곳 중 10곳 미만의 사업장만 시공사 교체나 청산에 나선다.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20곳 중에는 1곳만 사업을 이어간다. 브리지론 PF 사업장 대부분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이 이뤄지는 셈이다.

산은은 이날 운영위원회와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단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건설 대주단 9곳, PF 대주단 9곳 등 18곳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라며 “18일엔 전체 채권단을 대상으로 기업개선계획 초안을 놓고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내로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려고 하다 보니 설명회와 함께 채권단협의회 소집 통보를 진행할지, 설명회 이후 통보를 진행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尹 “총선 패배, 국민의 매서운 평가… 더 소통하겠다”

총선 관련 대국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를 열고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경제·민생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총선 민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때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

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쟁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의 소통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통대상으로 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 다 열려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 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
윤재욱(맨앞줄 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처리 법안 1만6351건 ‘법안폐기 1등’ 오명 남길까

21대 국회 법안처리 살펴보니

임기 종료로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법안 발의 2만5803건 ‘역대 최대’
통과율은 35%에 그쳐 최저 수준
정무위·기재위 주요법안 계류 중
내달까지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

2507건 대비 약 10.3배 증가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역대 최다다. 2000년 이후 임기별로 살펴보면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2만4141건 △21대 2만58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법안 통과율은 줄곧 하락 곡선을 그렸다. 16대 때 약 63%였던 통과율은 21대 들어 약 35%까지 낮아졌다. △16대 63.0% △17대 50.3% △18대 44.4% △19대 41.7% △20대 36.4% △21대 35.1%로 임기 때마다 최저점을 경신했다. 6·25전쟁 발발 후 4·5대(1958~1961) 국회에서 통과율 20%대를 기록한 것을 제

외하면 역대 최저 수치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원으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

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134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주로 맡는 기재위도 2385건의 법안 중 1389건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미처리율은 58.2%다. 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00% 줄이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저고위·관계부처 ‘베거덕’… 걱정만 낳는 저출산 대책

의견 조율 없는 독단적 행보에
부처 “독촉한다고 나오나” 불만
대책 발표 앞두고 표류 우려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의 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예산 구조조정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

애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두 차례 부위원장이 교체되며 수정안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시행계획에 불과해서다. 이에 저고위는 이달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5차 저출

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저고위의 업무 방식이 일방통행식”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관계부처 관계자는 “저고위에서 갑자기 연락해 하루 이틀 시간을 주고 회의 안건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도 “이렇게 쥐어짜면 뭐라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독촉한다고 대책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만들어진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저고

위에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관계부처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부처들에 대책이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견조차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회의 하겠다고 차관들을 소집하니 대부분 부처에서 실장급이 대참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안 기획재정부와 예산협회가 원활하지 않아 최근 기재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왔는데, 기재부는 지금도 돈 드는 대책을 만드는데 난색이다. 기재부 출신 간부들의 장점으로 꼽히는 추진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약 2조1000억 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12년 약 11조1000억 원, 2016년 약 21조4000억 원, 2021년 약 46조7000억 원, 2022년 약 51조7000억 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2023년까지 18년 동안 투입된 금액은 400조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숫자만 놓고 보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수록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악화한 셈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28년까지 SMR 활용 선박 만든다

〈소형모듈원자로〉

KRISO, 올해 신규 연구 착수
건설기간 짧고 비용 부담 절감
바다 위 원전 개발도 함께 추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컨테이너 선박과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나선다.

KRISO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SMR 추진 선박과 부유식 SMR 발전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신규 연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 배출제로’ 에너지원인 SMR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발전, 수소생산, 지역난방, 담수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MR은 주요기기를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소형 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소와 같이 큰 부피를 차지하는 저장탱크가 설치되지 않아 경제성이 높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축소



KRISO SMR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도(위 사진). KRISO 해상 부유식 SMR 발전플랫폼 개념도(아래 사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MR은 해운조선 분야에서도 선박의 주요 동력원으로써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RISO는 SMR을 탑재한 고속네오파나막스(Neo-panamax)급 컨테이너선 개발에 나선다. Neo-panamax급은 2016년 6월 폭 49m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한다. KRISO는 SMR을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의 개념설계 및 선박-원자력 통합 안전해석 프레임워크 개발, SMR 추진선의 추진기 설계 및 추진시

스템 개념설계 등 SMR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백부근 KRISO 지능형선박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SMR의 선박 적용 시 해상사고에 대한 원자료의 안전성 검토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검증되어야 하며, 선박 내 구획별 차폐 최적화와 방사선량 모니터링 등 방사능 관련 대응체계가 포함된 개념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수용성이 높은 SMR 추진 선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인 ‘해상 부유식 SMR 발전플랫폼’을 설계해 변수가 많은 해상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향후 전기 공급이 취약한 도서 지역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화 모델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해양에서의 SMR 상용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KRISO는 앞으로 SMR 발전플랫폼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에너지 원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금사와 대신… 파인애플 수입량 역대최대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지난해 동월보다 44.7% 증가한 8686톤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5.3% 증가한 867만8000달러로 역시 가장 많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성,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 일·가정 양립 정책 필요”

KDI ‘경단女 출산율 감소’ 보고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일과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자

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p) 줄어드는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 있는 환경이다.

보고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

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력단절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짚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국제유가 폭등에… 수입물가 석달째 경중

한은,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 발표
전월보다 0.4↑… 수출물가도 올라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달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7.85로 전월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데 이어 석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광산물(1.0%), 석탄 및 석유제품(1.0%),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0%)의 상승률이 유독 높았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보다 0.4% 높은 120.89로 집계됐다. 역시 3개월 연속 오름세다. 화학제품(1.1%)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9%)가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플래시메모리(8.1%)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0%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입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 팀장은 “국제유가가 4월에 90달러 가까이 올랐고 환율도 4% 안팎 상승했다”면서 “수입물가가 주로 광산물 영향이 크다. 광산물은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아보함은 아보다
더 강해야 한다

점점 더 강해지는 암보험으로
고객의 든든한 안심이 되겠습니다.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S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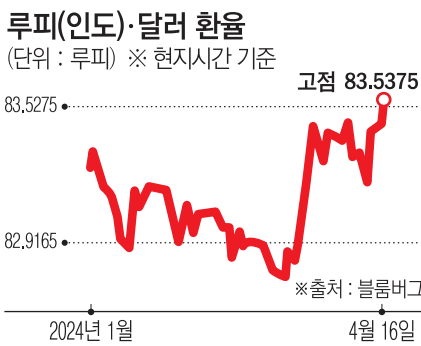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1837호(2024.3.29 ~ 2025.3.28)

亞외환시장, 중동전쟁·美금리·中위안화 ‘삼중고’

이스라엘 복수 공언... 불안 확대
美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역주행
中위안화 약세, 신흥국 통화 압박
인도 루피, 사상 최저치 등 혼란

아시아 외환시장이 글로벌 달러 강세의 거센 물결 속에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비롯된 중동발 리스크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중국의 위안화 약세 용인 등 3가지 충격이 16일 아시아 외환시장을 강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슈퍼 엔저’를 겪고 있는 일본 엔화 가치는 연일 34년 만의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54.45엔까



지 치솟으면서, 199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54엔 선을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 엔·달러 환율이 160엔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엔화는 물론 다른 아시아 통화 가치도 기록적으로 추락했다. 미국 달러당 인도 루피화 환율은 이전 기록인 83.50루피 선

을 넘으면서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만6000루피아를 넘어섰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를 매입하며 시장 개입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중앙은행이 개입을 시사했다. 대만 달러는 2016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다. 필리핀 페소화 가치 또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57페소까지 하락했다.

지난 주말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복수를 다짐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발 충격마저 외환시장을 뒤흔들었다.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 증가세가 시장 예상을 웃돌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다. 심지어 조나선 핑글 등 UBS 투자전략가들은 보고서에서 “경기확장세가 탄력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에서 정체된다면 연준이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재개해 같은 해 중반 금리가 연 6.5%에 도달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 강달러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아시아 신흥국 통화에 대한 하락 압력이 더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당 위안화 거래 기준환율을 전 날 대비 0.07% 올린 7.102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위안화 가치를 3월 1일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평가절하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특히 위안화는 아시아 다른 지역 통화의 ‘달’과 같은 존재여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한국, 태국 등 아시아 이웃국

들의 통화가 가장 큰 위협을 받았지만,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통 코테차 바클레이스 아시아 외환·신흥국 거시경제 전략 책임자는 “대부분 아시아 통화는 달러 강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며 “아시아 외환시장 움직임은 미국 국제 금리 상승과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주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엔화에 이은 중국 위안화 약세는 또 다른 하락 압력을 가했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크리스토퍼 왕 통화전략가는 “지정학적 이슈, 미국 고금리 장기화, 엔화와 위안화의 변동성 등 원치 않는 조합으로 인해 아시아 통화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효선 기자 hsbun@

‘고통스러운 보복’ 고심 깊은 이스라엘

이란 내 군사시설 표적 공격 가능성
전면전 방지·사상자 없는 옵션 고려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공격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 시내 각이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고통스러운 보복’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표적 목록을 이스라엘군에 요청했다”며 “이란에 메시지는 보내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이스라엘의 보복 방법으로 여

러 의견을 내놴. 큰 틀에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등 돌리게 하지 않는 수준의 공격이 유력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이란과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을 표적 공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직 이스라엘 외교관인 알론 핀카스는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한다면 그 결과는 표적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표적에는 군사 자산이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이란 공격을 받았던 남부 네바툼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에 대해 공중 우위를 점한 ‘아이언 쉴드(강철방패)’를 준비했다. 우리 영토로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가 언급한 아이언 쉴드는 지난 주말 이란 공격을 99% 방어한 이스라엘 방공 작전을 뜻한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전·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받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2번째)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해 심리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성추문 관련 입막음 돈을 건넨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정에 서게 됐다. 그는 6주 이상 진행되는 재판 내내 법원에 출석해야 해 대선 유세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런 전에 없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며 “이는 정치적 박해이자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中, 1분기 5.3% ‘깜짝성장’ ... 불확실성은 여전

PIGS ‘웃고’·獨 ‘울고’ ... 유럽 경제향방 양분

남유럽 4개국, 여행산업 회복 영향
GDP 총액 6년새 2000억 유로 늘어
獨, 제조업 악화·에너지 가격 발목

유럽 대륙의 경제 회복세가 양분되고 있다. 10여 년 전 유럽 재정위기 당시 ‘PIGS’라는 모욕적 호칭을 얻었던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4개국 경제는 호조세를 띠고 있는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최근 6년 동안 2000억 유로(약 297조 원)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포르투갈의 GDP 전체를 넘어서는 수치다. 반면 독일의 GDP는 같은 기간 약 850억 유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전부터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제조업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독일 연구단체 신경제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몰고 온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2022년 독일의 실질 임금이 1950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얼어붙은 내수 소비 역시 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 GDP는 지난해 0.3% 역성장했다.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중전의 1.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도이체방크가 마이너스(-) 0.2%, 독일경제연구소(IW)는 -0.5%의 전망치를 각각 제시하는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남유럽 국가 경제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제조업 침체나 값싼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영향이 크게 받지 않은 것도 호재가 됐다.

변효선 기자 hsbun@

GDP, 시장 전망치 0.7%p 웃돌아
신규주택 매매 전년比 30.7% 감소
춘제 이후 경제지표 부진도 불안요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중국은 올해 좋은 출발이라고 자평했지만, 지속하는 부동산 침체와 춘제(설날) 이후 경제활동 부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9조6299억 위안(약 57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 폭은 시장 전망치인 4.6%를 웃돌았고 지난해 4분기 기록한 5.2%보다도 컸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6.1%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4.7%, 농촌을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는 4.5%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은 성명에서 “1분기 국민경제가 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당의 영도하에 각 지역과 산업이 안정을 유지하며 전진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정책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

고 생산 수요와 고용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며 “시장 신뢰도는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첫 분기 성장률이 목표인 ‘5% 안팎’을 웃돌면서 자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0%, 4.8%로 상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속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1분기 신규주택 매매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감소한 1조85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고정자산 투자에서도 인프라와 제조업 부문이 각각 6.5%, 9.9% 늘어난 것과 달리 부동산은 9.5% 감소했다. 국가통계국은 고정자산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부동산 투자를 제외한 수치를 별도 공개하기도 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성랴이원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중국 경제는 탄탄한 출발을 했다”면서도 “부동산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거시 정책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주요 경제지표는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부진했다. 3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소매판매는 3.1% 증가했는데, 각각 전망치인 6.0%, 4.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 경제가 1~2월 춘제 특수로 깜짝 성장세를 보였다가 다시 급격히 둔화하는 형국이다. 지난주 먼저 발표된 3월 수출도 7.5% 급감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토미시에 애널리스트는 “내수 회복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부동산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서 관건은 중국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도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는 아직 바닥을 찍지 못했다”며 “민간 개발업체들은 이미 판매된 주택을 완공하는 데 4조 위안 상당의 자금 부족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AI 스마트폰 통했다… 삼성, 美서 갤럭시S24 화끈한 판촉전

한달간 써보고 맘에 안 들면 환불
이통사 구입엔 최대 1000弗 할인
AI 기능 기존 모델로 확대 적용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세계시장서 애플과 격차 벌릴 것”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AI) 기능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누르고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는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판매 고삐를 쥐며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따르면 현지 자금제 방식으로 갤럭시 S24와 갤럭시 Z폴드5, Z플립5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한 달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



1월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시리즈를 한 방문객이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으면 조건 없이 환불해 준다.

갤럭시 최신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AI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

고, 계속 쓸지 결정해도 된다고 유인하는 판매 전략이다.

또 T모바일, AT&T, 버라이즌 등 현지 이통사를 통해 구입할 경우 8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대규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제약이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시장에서 더 자유로운 할인 경쟁이 가능하다.

이 같은 대규모 판매 촉진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 말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AI 기능을 앞세워 양호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안방 시장인 한국에서 사전 판매에서만 121만 대가 팔리며 역대 S 시리즈 최고 기록을 썼다.

갤럭시 스마트폰 미국 내 2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직전 달인 1월과 비교하면 81% 늘었다. 갤럭시 S24가 출시된 이후 교체 수요가 급증했다는

평가다. 유럽에서도 2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직전 달 대비 14% 증가했다.

판매량 확대 일등 공신은 갤럭시 AI 기능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AI인 ‘갤럭시 AI’를 담고 있다. 실시간 통역, 채팅 어시스트, 서클 투 서치, 노트 어시스트, 생성형 편집 등이 대표적인 AI 기능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월드패널 컴테크는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호주의 갤럭시 S24 구매자 4명 중 1명이 갤럭시 S24를 선택한 핵심 이유로 AI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강민수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생성형 AI가 시장의 화두가 된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 S24는 사용자들이 AI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를 넘어 이전

제품들에도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일반·플러스·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플립·폴드5 △갤럭시 탭 S9 시리즈(일반·플러스·울트라) 등 총 9개 모델에 갤럭시 AI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

5월 초에는 원(One) UI 6.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S22 시리즈(S22·S22+·S22 울트라) △갤럭시 Z 폴드·폴드4 △갤럭시 탭 S8 시리즈(S8·S8+·S8 울트라) 모델에도 ‘갤럭시 AI’를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20.8%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6010만 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0.7% 줄었지만,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9.6% 급감하며 삼성이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송영록 기자 syr@

야놀자 여행 플랫폼 관심도 1위
라이브커머스 거래액 140% ↑

야놀자가 올해 1분기 17개 여행 플랫폼 중 여행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같은 그룹사인 인터파크 밀어내고 1위로 등극했다.

16일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야놀자는 1분기 총 4만8486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 4만1012건보다 18.22% 늘어 같은 그룹사인 인터파크를 밀어내고 여행 플랫폼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야놀자는 ‘숙박페스타’ 행사와 관련해서 다량의 포스팅이 공유했다.

야놀자는 라이브커머스 전용 카테고리 ‘야놀자라이브’의 1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시청자 수는 전년 대비 600% 증가한 340만여 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터파크는 4만8371건의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1위에 오른 야놀자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인터파크는 2023년 1분기에 5만3826건의 정보량을 기록한데 비해 올해 관심도는 10.13% 하락했다.

하나투어는 1분기 총 3만90건의 정보량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776건의 포스팅 수에 비해 26.56% 상승한 관심도를 보이며 3위에 올랐다. 이어 트립닷컴이 2만8833건의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고 여기어때가 2만8218건의 정보량으로 5위를 기록했다. 트립닷컴은 지난해 1분기 8398건에 비해 243.33% 급증한 관심도를 기록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2만242건의 포스팅 수에 비해 올해는 39.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리얼트립은 작년 1분기 1만2120건의 포스팅에서 107.62% 상승한 2만5163건의 정보량을 기록해 6위를 차지했다. 이어 모두투어가 올해 1분기 1만9299건으로 25.68% 올랐고 노랑풍선은 8.82% 늘어난 9909건을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1분기 여행 플랫폼 업계 전체 관심도는 2023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7.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여행 업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보안·SW 기업 IPO 흥행했지만… 주가·실적 ↓

시큐레터 ‘감사의견 거절’

주가도 최고가 대비 85%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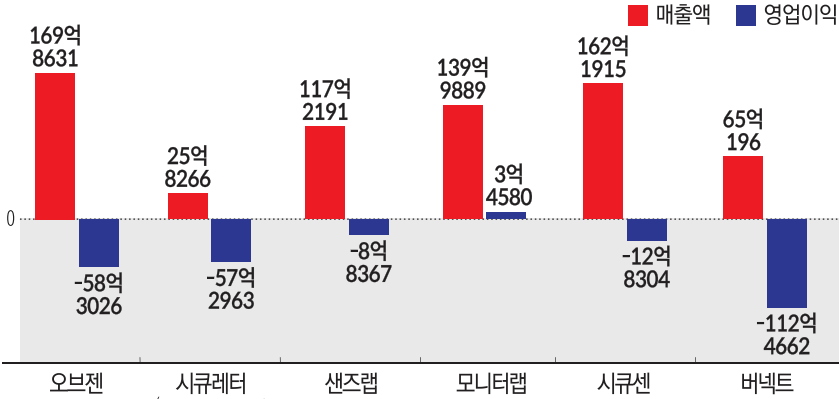
오브젠·시큐센 70%대 하락

15% 빠진 샌즈랩 체면치레

지난해 시큐레터를 비롯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국내 보안·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주가와 실적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공·민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 속에 기업공개(IPO)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IPO 흥행몰이 주역 중 하나였던 시큐레터는 상장 8개월만에 회계 부정이 의심돼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이다.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시큐레터 측은 “영업 정책 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의 차이”라고 해명했고, 한국거래소는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중에도 매매거

2023년 코스닥 상장 보안·SW 기업 실적 (단위: 만원)



래 정지가 지속된다.

시큐레터의 주가는 5일 이후 6550원에 멈춰있다. 이는 최고가 대비 8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지난해 8월 IPO를 진행했을 당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544.73대 1,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698대 1을 기록했던 흥행몰이가 무색해진다.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다른 보안·SW IT기업도 주식 시장에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술 특례 상장한 오브젠은 16일 종가 기준 1만2310원을 기록했다. 최고가 5만4500원으로 대비 77.41% 하락했다. 오브젠은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닛트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69억

원, 영업손실 58억 원이 발생했다.

오브젠은 인공지능(AI)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작년 1월 30일 상장 첫날 ‘파상’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파상이란 첫 거래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배로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05% 뛰었던 시큐센은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견고 있다. 이날 시큐센 주가는 2580원으로 최고가 대비 78.13% 떨어졌다. 시큐센은 생체인식 기술 전문기업으로 전자서명 플랫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큐센은 지난해 매출은 162억 1915만원, 영업손실 12억 8304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산업용 XR 솔루션 리딩 기업 버넥트는 적자 폭이 크다. 버넥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5억 원, 영업손실 112억 4662만 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버넥트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29%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20% 감소하는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이날 기준 버넥트의 종가는 6100원으로 최고가 대비 75.4%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 호재로 최근 주목을 받는 사이버 보안기업 샌즈랩이 그나마 체면치레하고 있다. 샌즈랩은 지난해 2월 국내 보안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술 특례 상장했다.

샌즈랩의 주가는 1만4170원으로 전날 대비 0.5% 상승했다. 상장 당시 최고가와 15% 가장 차이난다. 샌즈랩은 지난해 26일 MS와 차세대 AI(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샌즈랩은 지난해 매출액 117억 원, 영업손실 8억 8367만 원을 기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은주 기자 letswin@

팔도, 베트남 2공장 완공… “1공장 합산땀 라면 年 7억개 생산”

품질 강화… 생산·수출 거점으로

hy의 종합식품 계열사 팔도가 베트남 제2공장(2공장·사진)을 완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팔도는 2공장의 설비 확충을 지속하며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공장은 베트남 남부 띠이닝성 인근에 있다. 3만3920㎡(1만260평) 대지에 연면적 1만2506㎡(3783평) 규모다. 2공장은 라면 뿐만 아니라 음료 생산이 가능해 팔도의 현지 사업 포트폴리오는 더 다양

해질 전망이다. 이미 준공한 1공장은 베트남 동북부 푸토성에 있으며, 총 3개의 라면 생산라인을 갖췄다.

팔도는 이번 2공장 완공으로 베트남 남북으로 이어지는 생산벨트를 구축했다. 1, 2공장 모두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엄격한 국내 생산품질 기준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내수용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2공장 완공과 함께 생산량도 확대된다. 조리면, 즉석면 등 라면 제품은 연간 1억 개, 음료는 1억 5000만 개 생산할 수

있다. 2025년 예정된 라면 생산라인 증설까지 완료되면, 라면 생산량은 연간 4억 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1공장 생산량을 합할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만 연간 7억 개의 라면 생산이 가능해진다.

팔도는 베트남 현지법인 중심의 수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팔도는 현재 베트남 현지 생산 제품을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독일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작년에는 동남아시아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다. 팔도 관계자는 “국내 수준의 생산품질을 갖춘 베트남 제2공장은 팔도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기흥시대 여는 삼성디플... ‘디스플레이 명가’ 굳힌다

8월까지 용인 기흥캠퍼스 신사옥
연구개발·재무 등 5000명 입주
기준엔 삼성전자 건물 분산근무
부서 한데모아 업무 시너지 기대

삼성전자자회사삼성디스플레이가 ‘셋방살이’를 끝내고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 신사옥으로 둥지를 옮긴다.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8월에는 모든 이전을 완료한다. 독립사옥으로 새 시대를 열고 연구개발(R&D) 중심 경영체제를 강화해 디스플레이 명가로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6월 완공 예정인 ‘삼성디스플레이 리서치(SDR)’에 8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연구개발과 마케팅, 재무·회계, 법무 등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사무직 인력이 차례로 입주하고, 곧바로 입주식



삼성디스플레이가 기흥 사업장에 건설 중인 신사옥 투시도.

사진제공 삼성디스플레이

도 가질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사옥은 지상 15층~지하 5층 규모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처럼 저층부가 연결된 형태로 총 2개의 빌딩이 들어선다. 삼성디

스플레이의 본사 사옥은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짓고 있다. 이날 기준 막바지 준공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신사옥이 완공되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총 500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독립 사옥이 없던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사무직 인력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기지가 있는 기흥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분산 근무해 왔다. 삼성전자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는 형태로, 한 건물에 양사 임직원이 섞여 지내기도 했다. 이런 탓에 회사 안팎에서는 부서 간 소통이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독립 사옥으로 새시대를 열고 투명·확장현실(XR)·차량용 등 3대 디스플레이 신사업을 집중 육성해 올레드(OLED)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전장용 중소형 올레드 사업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주력하는 퀀텀닷(QD) 올레드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QD 올레드는 올레드 패널에 삼성디스플레이의 퀀텀닷(양자점 자발광물질) 기술을 더한 디

스플레이 패널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기흥 내에서도 분산돼 있던 부서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업무 효율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 독립 사옥으로 옮기면서 R&D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위한 투자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는 IT용 올레드 분야에 2026년까지 4조1000억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유지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재계 “RSU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공정위에 반대 의견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정위, 대기업 공시 매뉴얼 개정
한경협 “금감원에 중복보고” 지적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됐으나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실적만을 추구해 회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RSU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취지로 도입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

다. 일본에선 상장사의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는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르면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때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정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RSU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금감원과 공정위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이동욱 기자 toto@



로보락 신제품 로봇청소기 ‘S8 MaxV Ultra’.

사진제공 로보락

中 로봇청소기 ‘로보락’ 국내 첫 신제품 론칭쇼

중국 가전업체 로보락이 로봇청소기를 필두로 국내 가전 시장 공세를 강화한다. 로보락은 현재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품 라인업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로보락은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로봇청소기 신제품 ‘S8 MaxV Ultra’를 공개하고, 이러한 전략을 밝혔다. 댄 챔(Dan Cham) 로보락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과 김서영 한국 마케팅 총괄이 직접 나서 신제품을 소개했다.

신제품은 모서리와 가장자리 등도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는 엣지 클리닝 기능과 스마트 음성 명령 기능 등이 탑재됐다. 또 진공 및 물걸레 청소 기능도 대폭 향상됐다. 출고가는 184만 원이며, 18일 출시한다.

로보락이 신제품 론칭쇼를 한국에서 직접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로보락의 국내 매출액은 2000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35.5%를 차지했다. 150만 원 이상 하이엔드급 시장 점유율은 80.5%를 기록했다. 국내 업체들의 빈자리를 빠르게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스팀 살균 기능 탑재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을 출시했다.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은 물론 물걸레 청소와 자동 세척, 스팀 살균까지 해준다. LG전자 역시 이달 일체형 로봇청소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르노코리아 플래그십스토어 ‘르노 성수’ 오픈

르노코리아가 서울 성수동에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하며 르노가 새롭게 발표한 ‘뉴벨바그’ (새로운 물결) 전략을 한국에 전개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르노코리아는 1995년 건립된 성수 사업소를 전면 개편해 르노그룹 글로벌 스토어 표준에 맞춰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합 문화 공간 ‘르노 성수’를 조성했다. 리모델링 과정에는 프랑스 르노 본사 디자인팀이 참여해 브랜드 헤리티지와 정체성을 강조했다. 르노 성수에서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외에도 르노의 브랜드 철학과 프랑스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성수에 자리한 만큼 인생 첫차를 구매하는 2030 세대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르노 성수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기본으로 카페, 팝업스토어, ‘디 오리진(The Original)’ 르노 굿즈 판매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르노 성수의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인다. 아울러 각 공간을 르노의 역사와 미래가 어우



러진 아이템들로 채웠다. 방문객들은 르노 차량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프랑스 자동차 문화와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르노 성수는 다양한 고객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는 △일렉트로 팝 360° 스튜디오 △인공지능(AI)으로 즐기는 나만의 뮤직박스 △미션! 로망주를 찾아라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방문객들에게 르노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경제현 “삼성 반도체 50년 꿈의 이정표”

美 테일러시 파운드리 보조금 행사
“설계부터 완성까지 美서 제조 공급”

경제현(사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서는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 “완공되면 미국 파트너 및 고객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 사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50년의 꿈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열린 반도체 보조금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경 사장은 “반세기 전 한국에서 삼성반도체는 지구상 가장 작고 발전된 컴퓨터 칩을 만들어 세상을 잇겠다는 목표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테일러시 공장은) 첨단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수천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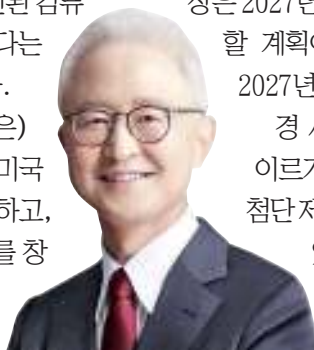
스주 테일러시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9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초 계획했던 투자액 170억 달러에서 공장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약 450억 달러(약 62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2개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및 연구개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6년부터 4nm(나노미터·10억분의 1m)와 2nm의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3nm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펌 역시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

경 사장은 “설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조된 최첨단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예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읍 '리리' 팀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제도안착 지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

AI헬스케어·첨단재생바이오 등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북·대구 등 5곳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정 후 고시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



글로벌 혁신특구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	시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해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됐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

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약 53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61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 장관은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 진료 추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약의 배송, 환자 자택 임상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경북은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김, 당일 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 표준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구 Inno덴탈 특구는 폐치아의 윤리적·실용적 재활용을 위해 치과 병원·공공 연구기관·기업이 연계하고, 향후 치의학 신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은 수산부산물, 수소모빌리티 등 2개 사업을 최종 심의에 올렸다. 충남은 그린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해 해상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하고, 내륙에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특구 계획으로 수립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정수현 기자 int1000@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원

홍콩은 이달 열린 홍콩 춘계 전자박람회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홍콩

렌탈·소형가전 업계, 해외 전시회 ‘노크’

청호 미시카고·락앤락 암비안테
휴롬은 올 5개 해외 전시회 참가
영업망 넓히고 미개척시장 진출

청호나이스와 휴롬, 락앤락, 신일전자 등 국내 렌탈 및 소형가전 업체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를 공격적으로 찾고 있다.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내수 불황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 소비자 박람회인 ‘2024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IHS)’에 참가했다.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는 ‘홍콩 홈인 스타일’, ‘독일 암비안테’와 함께 세계 3대 소비자 박람회로 꼽힌다. 청호나이스는 이 박람회에서 커피머신과 얼음정수기 기능을 모두 가진 올인원 제품 ‘에스프레 카페’를 비롯해 초소형 역삼투압 정수기인 ‘TIDY’, 항균 공기청정기 ‘A600’ 제품군을 선보였다.

휴롬은 올해 들어 5개 해외 전시회를 찾았다. 1월 암비안테, 2월 일본 건강박람회에 이어 지난달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달에는 홍콩 춘계 전자박람회와 독일 피보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선보였다. 밀폐용기 제조 대표 기업인 락앤락과 코맥스는 1월 독일 암비안테에, 계절가전 대표 격인 신일전자는 ‘2024 중국 수출입 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부스를 마련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들이 참가하는 박람회와 전시회는 대

체로 오랜 역사를 유지했거나 수십 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들이다. 미국 IHS는 8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북미 최대 규모 가정용품 박람회다. 암비안테 역시 지난해 기준 168개국 3385개 기업이 참가했다. 신일전자가 간 중국 전시회 역시 최대 규모 무역 전시회다.

업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해외 박람회 참가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해외 진출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람회를 통한 접점 확대로 기존의 영업망을 더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휴롬의 경우 지난해 연 매출 1260억 원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다. 독일법인을 중심으로 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권 매출을 전년 대비 47% 키웠다. 휴롬은 일본에선 40여 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암비안테에서 44개국 130여 명의 바이어와 미팅에 나섰다.

해외 실적이 크게 꺾인 기업들은 신규 시장 확보가 더 절실하다. 여름 가전 대표 기업인 신일의 지난해 매출액은 1843억 원으로 전년(2027억 원) 대비 9.07% 줄었다. 특히 수출액이 1억3000만 원 수준으로 전년(18억 원) 대비 94%나 급감했다. 신일이 올해 처음으로 캔톤페어에 참가한 이유로 풀이된다.

신일전자 관계자는 “기술력과 디자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재미·감동 다 잡는 ‘웹툰의 힘’… 정부·지자체도 ‘러브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웹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히 자체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웹툰 팬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 등에 연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네이버웹툰에 연재 중인 문화재청의 ‘환수왕’ 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향단면’ 웹툰은 각각 별점 10점 만점에 9.93, 9.9점을 기록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작들을 넘어서는 기록은 아닐지라도 일반 웹툰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나 지자체에서 웹툰을 플랫폼에 정식 연재하는 건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환수왕은 과거로 돌아가게 된 고미술품 경매사 주인공이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하게 반출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가 유산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았던 코믹 웹툰이

문화재청, 네이버웹툰에 ‘환수왕’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심 높아

남원시도 카카오페이지 ‘향단면’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존의 단발성 이벤트서 벗어나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며 큰 호응

다. 환수왕을 본 누리꾼들은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도 하다니”, “트렌드, 참신, 개그, 사이다를 모두 잡았다”,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을 이겨 보려고 기다린다” 등의 긍정적인 감상평을 남겼다.

향단면은 ‘춘향전’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로맨스코미디 장르물로, 취준생 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춘향전 속의 ‘향단’에 빙의한 후 사도 변학도와 엮이며 전개되는 로맨스 이야기를 다룬다. 향단면을 감상한 이용자들은 “남원시 제작이라

정부·지자체 웹툰 인기작



니, 멋진 곳이다”, “남원시 공무원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전통 춘향전을 소재로 기발하다” 등의 감상 후기를 공유했다. 이처럼 K-웹툰의 인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웹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102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웹툰을 통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23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웹툰산업의 총매출액은



1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최대치로, 2017년 기준 3799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엠제트(MZ) 세대에 익숙한 주류문화이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웹툰의 형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세대에 남원을 알리고,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관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두 작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 지자체의 홍보물은 재미없을 거라는 선입견과 달리 신선한 재미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도, 독자들의 외면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재미와 경쟁력을 우선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정부에서 웹툰을 제작해 연재했으나, 개연성과 재미를 살리지 못해 독자들의 외면을 받은 바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억9000만 원 가량 투입, 스타작가를 통해 웹툰 ‘희망강림’을 연재했으나 스타성에는 못 미치는 재미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에 연재됐던 희망강림 웹툰은 10점 만점에 별점 5.52를 기록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홍콩 ETF發’ 코인 상승장 올까… “5억弗 유입도 힘들 것” vs “최소 100억弗”

전문가들 엇갈린 전망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이들 상품의 시장 영향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5억 달러도 행운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보수적으로도 100억 달러의 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승인된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향후 자금 유입 규모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홍콩 가상자산 ETF를 두고, “많은 유입을 기대하지 말라”면서 “5억 달러 유입도 행운이며, 250억 달러 유입 예상은 허무맹랑



엇갈린 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자금 유입 전망

5억달러 (이더리움 현물 ETF 포함)	자금 규모	100억~200억달러 (이더리움 현물 ETF 제외)
- 미국 대비 작은 홍콩 ETF 시장 규모 - 중국 현지인 공식적으로 투자 불가 - 낮은 시장 효율성, 높은 수수료	주요 이유	- 미국 ETF 투자자들의 24시간 유동성 수요 충족 - 중국 현지인의 글로벌 중립자산(가상자산) 선호 - 현물 환매 방식으로 비용 절감

“홍콩 ETF 시장 규모 크지 않고
현지인 공식적으로 구매 불가”

하다”고 말했다. 또한, 5억달러자금 유입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유입도 포함한 수치라고 밝히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영향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전망한 이유로 시장 규모와 중국 현지 자금의 실제 진입 여부, 시장 효율성 등을 꼽았다. 그는 “홍콩 ETF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에 불과하

며, 중국 현지인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 ETF를 구매할 수 없다”면서 “홍콩에서 승인된 3곳의 발행사는 블랙록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자본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이는 ETF의 스프레드와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고, 수수료 역시 미국 자산 운용사들 대비해 높은 1%~2%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추나스는 미국 외 국가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출시가 늘어나는 것은 비트코인에 분명 긍정

“미국 투자자 수요 적지 않을 것
中 큰손 유입 가능성” 낙관론도

적이지만, 미국 시장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소 1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상장 후 첫 12개월 동안 100억~2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



다. 정 센터장은 홍콩 ETF가 미국 투자자들의 24시간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글로벌 통화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강한 선호를 충족해 성공할 것으로 봤다. 홍콩이 최근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금지한 중국과 다른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코로나19 시기 동안 경쟁국에 밀린 경제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의 도입을 핵심 요소로 삼은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홍콩의 현물 ETF의 차별점으로 현물 환매 가능 여부를 꼽았다. 그는 “ETF를 현금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와 달리,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을 ETF로 직접 교환할 수 있다”면서 “이런 현물 환매 방식은 현금 환매보다 절차가 단순해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LG CNS,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고도화

지식 저장소·대화형 챗봇 등 추가
‘딥 젠 AI 플랫폼’ 서비스 대폭 강화

LG CNS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LG CNS는 16일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딥 젠(DAP Gen) AI 플랫폼’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출시한 언어 생성형 AI 솔루션인 ‘젠 AI 텍스트’에 ‘지식 저장소(Knowledge Lake)’ ‘젠 AI 이미지’ ‘젠 AI 톡’ 등 3개 솔루션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딥 젠 AI 플랫폼은 LG CNS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기업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언제나 손쉽게 만들어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고객은 자체 서버, 클라우드 등 보유 중인 인프라에 딥 젠 AI 플



랫폼을 설치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

지식 저장소를 활용하는 기업 고객은 생성형 AI로 사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업무 관련 수십만 페이지의 문서를 확인할 필요 없이 질문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지식화(화)된 내부 문서를 분석해 답변을 제공한다.

워드·파워포인트·엑셀·한글·PDF 등

모든 문서 형태를 지식화할 수 있다. 문서 내 표·이미지 등도 인식할 수 있다.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질문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지식 저장소에서 찾아 답변을 해준다.

젠 AI 텍스트는 기업들이 언어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서 요약, 상품 추천, 보고서 작성 등 서비스를 구현하고 즉시 배포할 수 있다. 생성형 AI 활용에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자연어 입력값)도 만들어준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서비스도 강화했다. 고객이 LLM을 직접 조정해 비즈니스에 특화된 LLM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젠 AI 이미지 설루션을 통해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맞춤형 거대 비전 모델(LVM)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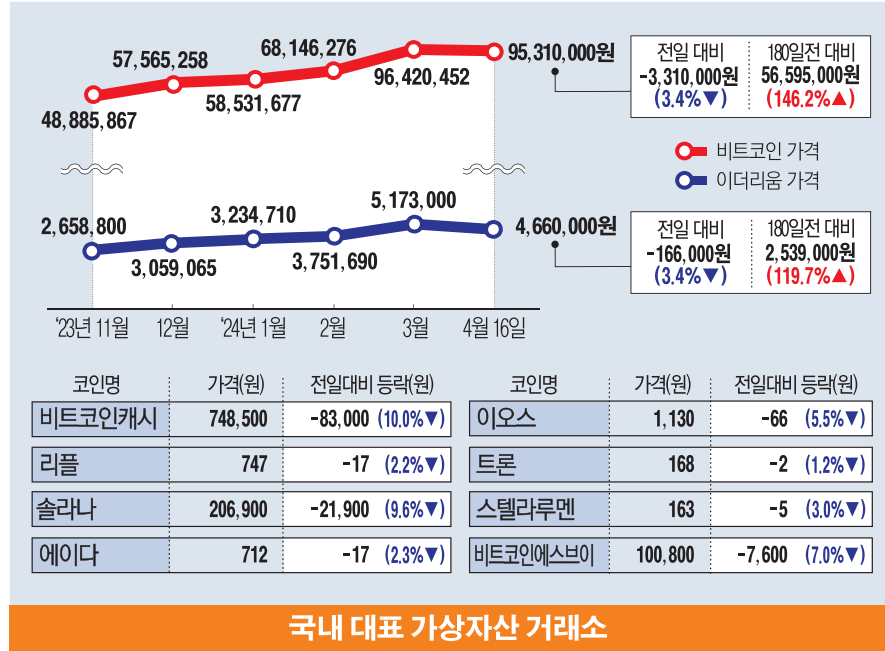
젠 AI 톡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챗봇 서비스 구축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LG CNS는 소개했다. LG CNS는 지난해 20여 개의 생성형 AI 사

업 사례(레퍼런스) 등으로 확보한 기술적 자산을 딥 젠 AI 플랫폼에 담아 완성도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빗썸 지수 (2024년 4월 16일 17:00, KST)



건선 치료제 성능 UP... 글로벌 기업, 韓시장 고배

‘생물학적 제제’ 상용화 활발

애브비 ‘스카이리치’ 질환치료제에
농포증 적응증 추가로 환자군 확대
얀센 ‘스텔라라’ 등 IL억제 기전 허가
국내 기업도 적극 출시... 경쟁 치열

건선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를 국내에 공급하는글로벌 기업들이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광선 치료나 국소치료제와 비교해 증상 호전 효과가 높아환자들 수요가 크다. 대다수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해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 애브비는 최근 건선성 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맵)’에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 적응증을 추가했다.

스카이리치는면역매개염증성 질환에서염증 유발과 연관된 인터류킨-23(IL-23)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 국내에서는2019년 6월 중등도·중증 판상 건

국내 중증 건선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 ※출처: 각 사			
계열	기전	기업	품명
IL 억제	면역형성 관여 인자 과다분비 차단	애브비	스카이리치
		얀센	스텔라라, 트렘피어
		릴리	탈츠
		노바티스	코센틱스
TNF- α 억제	T면역세포 매개 물질 과다분비 차단	화이자	엔브렐
		얀센	레미케이드
		애브비	휴미라

선 치료제로, 2022년 1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번 적응증추가로스카이리치가포괄하는환자군은 더욱 넓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허가한IL 억제기전 생물학적 제제는스카이리치이외에도얀센의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맵)’와 ‘트렘피어(구셀쿠맵)’,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맵)’,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맵)’ 등이다. 스카이리치와 트렘피어는 IL-23을, 코센틱스와 탈츠는 IL-17을, 스텔라라는 IL-23과 IL-

12를 억제한다.

국내에선 IL억제제 외에도 ‘종양괴사인자(TNF- α)’를 억제하는 계열의 생물학적 제제까지 상용화됐다. TNF- α 는 T면역세포의 면역 매개 물질로, 건선 병변이 나타나는 환자에게서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를 억제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과도한 세포 증식을 막을 수 있다. 화이자의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 얀센의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맵)’와 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맵)’ 등이 경쟁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 치료 옵션 중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대한건선협회에 따르면 중증 이상의 건선 환자는 생물학적 제제의건선중증도지수(PASI)는 90 내외로 이전 치료제와 비교해 전신의 90%가량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 비생물학적 국소치료제와 광선 치료를 시도한 이후에도 반응하지 않는환자에대한 3차 치료제로 활용되서다. 경증 환자는 1차와 2차 치료에서도

증상이 대부분 호전돼,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중등증에서 중증 환자에게 투약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 역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15만4399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건선 환자 가운데 20% 수준인 약 3만 명이 중증 단계인 것으로 파악했다.

환자군이 제한적인 만큼, 효과성 임상 데이터와 가격 경쟁력이 제품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건선 환자가 비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경우, 1년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약값을 부담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한 생물학적 제제는 모두 주사제인데, 최근 경구투여 제형이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앞서는 경쟁자로 등장했다”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외에서 활발히 출시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성주 기자 hsj@

“성공적인 기술이전 위해선... 중장기 전략과 확실한 목표 있어야”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기술이전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세진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구 레고켄바이오) 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데일리 패밀리 데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리가켄바이오는 국내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몇 안 되는 바이오기업이다. 최근 3년간 매출은 모두 3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까지 누적 13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고, 계약 규모는 누적 8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센과 맺은 최대 17억 달러(약 2조 2400억 원) 계약은 최근 2년간 글로벌 항체 약물접합제(ADC) 전체 계약 규모 3위

박세진 리가켄바이오 사장

매출 300억·13건 기술이전 달성
오리온 제휴로 신약 개발 실탄 확보
“처음부터 전담조직 설치 노력”

에 오르기도 했다.

박 사장은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기술이전 전략은 무엇인지 설정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초기에 기술을 이전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임상 진입 후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등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황 맞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세진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데일리 패밀리 데이에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및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다.

박 사장은 “회사 자금과 개발 역량에 따라 개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자금이 많고 개발 역량이 높으면 독자 개발하고, 자금과 개발 역량이 부족하면 기술이전을 빨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회사 사정에 따라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올 초 국내 종합 식품기업 오리온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자금 5500억 원을 받아, 신약 개발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박 사장은 “우리의 경쟁사가 빅파마로 인수되고, A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이 좋아져 전략을 수정했다. 그 러기 위해서는 1조 원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5000억 원이 있었다. 그래서 오리온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완벽한 자율권을 보장받았고, 신약 개발 자금 1조 원을 확보하며 초기 비전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조직과 지역별 전문 기술이전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밀착형 사업개발 활동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사장은 “처음부터 내부에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키워야 한다. 외부에 맡기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또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회사에 대해 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이전을 제일 잘해줄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다. 그들이 우리 회사가 좋다고 홍보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회째인 데일리 패밀리 데이는 벤처캐피탈(VC) 데일리파트너스와 바이오스타트업 교류 행사다.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및 산업 전망부터 기술이전·상장·특허 등 스타트업 경영 전반에 필수적인 다양한 강연과 새로운 파트너십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글·사진 이상민 기자 imfactor@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 등 먼저 이뤄져야”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 기자회견
“전공의 중 절반 복귀 생각 있어
의료사고 구제해줄 방안도 필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옥하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150명을 대

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류옥하다씨는 “사직 전공의 중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해 군복무기간 현실화를 꼽는 답변이 있었다”며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 군복무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굳이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류옥하다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복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징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한 류옥하다씨는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려는 이들도 많고,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또 전공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를 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유틸렉스, 자회사 아이앤시스템과 합병

참석주주 99.9% 안전 찬성

유틸렉스는 15일 열린 합병승인이사회에서 자회사 아이앤시스템과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틸렉스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로 안전을 처리했다. ‘정관 변경의 건(제2호 의안)’은 지난달 14일 합병을 결정한 아이앤시스템의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건이다. 참석주주 1602만 4013주 중 1600만 935주(99.9%)가 안전에 찬성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5일 주주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청사진을 내놓는 등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유틸렉스의 아이앤시스템 사업부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 IT 컨설팅, 프로그램 솔루션 개발 및 유통 등 시스템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부는 2023년 연매출 약 1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0.3%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게 된 유틸렉스는 첨단 정보기술과 바이오의 시너지를 통한 성장모델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연호 유틸렉스 대표는 “주총에 앞서 주주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청사진에 많은 주주가 지지를 보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회사와 주주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기에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샤넬백? 직구하지 뭐”... ‘배짱영업’ 명품매장 ‘매출 댈서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보복소비 등으로 꾸준히 실적 성장곡선을 그려왔던 명품업계가 올상이다. 엔데믹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등을 통해 현지에서 명품 직접구매에 나서면서, 주요 명품브랜드의 한국법인인은 일제히 실적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에도 주요 기업은 본사배당금을 늘리는 한편 국내에서만 가격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거세다.

16일 경영컨설팅기업베인앤드컴퍼니(Bain&Company)에 따르면 2021년 31.8%, 2022년 20.3%에 달했던 글로벌 명품 시장의 성장률은 지난해 3.7%에 그쳤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법인의 성장세도 꺾였다. ‘샤넬’을 운영하는 샤넬코리아가 전날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2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다. 당기 순이익도

꺾대 높던 샤넬 루이비통·롤렉스 지난해 영업이익 두 자릿수 감소 해외본사 배당 늘리며 비난 거세

2197억 원으로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루이비통’의 한국법인 루이비통코리아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1.3% 줄어든 2867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은 2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42.7% 급감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을 전개하는 크리스찬디올꾸뛰르코리아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3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2022년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53.1%였던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예를 시계 대명사인 스위스의 ‘롤렉스’를 운영하는 한국로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3억 원으



주요 명품 영업이익 (단위: 억원)



로 94.9% 대폭 쪼그라들었다. ‘오메가’, ‘해밀턴’ 등을 전개하는 스와치그룹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4% 줄었다. 지난해 매출도 17.5% 감소한 3079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80.4% 줄어든 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적 악화에도 주요 명품 브랜드의 한국법인인은 오히려 해외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샤

스찬디올꾸뛰르코리아는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디올홍콩법인(67.80%)과 프랑스 본사(32.20%)에 지난해 2148억 원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전년 대비 30.4% 늘어난 규모다. 반면 이들 기업은 사회공헌도의 핵심 지표인 국내 기부금도 최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업체들은 이와중에도 국내에서만 ‘가격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해 동안 몇 번의 가격인상을 단행해 ‘N차인상’의 대표주자격인 샤넬은 올해 1월 주얼리와 시계 등의 품목에 대해 새해 첫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어 2월에는 뷰티제품의 가격을 5~10% 인상했고, 지난달엔 인기 가방 제품을 6~7% 인상하며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가격인상을 했다. 디올은 올 1월 대표 인기 제품인 로즈드방, 디올아무르, 쟈디올 등 고가 라인 귀걸이·팔찌·반지 등의 가격을 12% 이상 올렸다. 루이비통도 2월 일부 가방 제품의 가격을 5% 안팎으로 인상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물가, 잡힌 게 아니라 참은 거였나... 총선 끝나자 줄인상

4·10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내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당장 고물가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납품가격이 오른 탓이다. 향후 중동 사태 확전에 따른 유가 인상, 환율 급등세가 장기화될 경우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 24 등 국내 편의점 4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나미의 ‘153 볼펜’ 가격이 기존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33%) 오른다. ‘스틱볼펜’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

고환율에 납품단가 상승 불가피 생리대·가공란 등 생필품값 올려

다. 생리대와 면도기 가격도 땀다. 엘지 유니참의 ‘썸피 바디피트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중(中) 사이즈(4개입)는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대(大) 사이즈(16개입)는 9400원에서 9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루코의 ‘페이스면도기’는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10.5%), ‘페이스 4면도기(3입)’는 5200원에서 5700원으로 500원(9.6%) 각각 인상된다. 가공란

의 경우, 계란 2개입 ‘감동란’과 ‘죽염동훈제란’은 각각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씩 오른다.

햇닭알로 만든 ‘녹차훈제란(3개)’은 300원(10.3%) 오른 3200원에 판매예정이다. 편의점 판매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납품가가 동반상승한 영향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뛰는 구조”라며 “업체별 취급 품목과 미취급 품목이 있지만, 가격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은 편의점 업계 대부분 동일하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

7월 통합 이마트 법인 출범

대형마트 1위 기업 이마트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한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은 작년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 겸임 이후 추진해온 통합 시너지 창출의 확대를 위해서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발행주식 총수의 99.28%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이다. 합병 계약일은 이달 30일이며,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다.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통합 이마트가 출범하면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대형마트와 SSM 교차이용 고객을 위한 통합 마케팅도 확대할 수 있다. 통합 물류를 활용해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 센터를 함께 활용, 보다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한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우엔지니어링**

 **Water Solution**

 **E-CLEAN WATER**

“또다시 킹달러가…” 여행족·기러기 아빠는 ‘속알이’

중동궤 리스크 확산…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

#미국 주재원으로 2년 간 파견을 가게 된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급등한 환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급은 현지 통화로 받게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나 유지비 등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어서다. 더군다나 중동 사태 등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 환전을 해놔야 할 지 환전 타이밍 찾기도 어려운 상태다. 박씨는 “몇 주 뒤면 미국으로 가는데 매일같이 환율을 체크하면서 환전상담을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5월 항공연휴를 맞아 영국으로 해외 여행을 갈 생각에 떠들던 직장인 강 모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에 육박하면서 예상했던 여행경비보다 훨씬 초과됐기 때문이다. 강씨는 “코로나19로 몇 년간 해외를 못가서 이번에 연차까지 불려서 가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접어야 될 것 같다”면서 “그 돈으로 국내 지역 럭셔리 여행으로 돌릴까 알아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환율 연일 최고…주재원 등 시름
美금리 인하 지연에 중동 위기
‘안전자산’ 달러 수요 크게 증가

환율 우대·환전 수수료 무료…
은행권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학생이나 주재원 파견, 해외 출국을 앞둔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사태 확산 조짐으로 당분간 고환율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4.0원)보다 10.5원 뚫은 1394.5원에 마감했다. 장중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마감했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있었던 2022년 하반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환율 우대 혜택 ※ 출처: 각 사

	KB국민은행 USD 10~1000달러·JPY 1000~10만엔·EUR 10~1000유로 환율우대 100%
	신한은행 ‘솔(SOL)트래블 체크카드’에서 30종의 통화에 대해 100%의 환율 우대
	하나은행 ‘트래블로그’에서 41종의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
	우리은행 ‘우리 외화바로예금’에서 달러 100%환율 우대
	NH농협은행 ‘내맘대로 외화BOX’에서 환전 시 최대 90%의 환율 우대
	SH수협은행 비대면(인터넷뱅킹·파트너뱅킹 앱) 거래 시 최대 100% 환율 우대

최근 환율이 빠르게 오른 것은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심화로 중동 지역의



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디지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0.5원 오른 1394.5원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1포인트(2.30%) 하락한 832.81에 거래를 마쳤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수요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다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유의미한 1차 상단은 빅피커인 14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중동 갈등 전개 상황에 따라 확산으로까지 연결될 경우 2차 상단으로 1440원을 예상한다”고 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환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4월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 계절적으로 달러 유출 가능성이 높은 달이기 때문에 상단을 높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당분간 ‘킹달러’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여행객과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야 하는 기러기아빠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은행권은 환율 우대, 환전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거나 출시 예정이다.

최근 LG유플러스·신세계면세점과 각

각 제휴해 환율 우대 및 상품 할인에 나선 KB국민은행은 22일 KB국민카드와 협업해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통해 전 세계 30종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트래블로그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전 세계 41종의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중 우리 외화바로예금상품을 리뉴얼해 환전 수수료를 없애고 해외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 30일까지 ‘최대 환율우대 90%+사회공헌 10%’ 환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달러를 사두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를 구입해야 한다면 여행 비용이나 투자 등 환전 목적에 따라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외화자금 조달 선제적 대응을”

금감원, 은행권에 주문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보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내 리스크 담당 임원(CRO)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한 때 1400원대로 치솟았다.

금감원은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자금조달계획을 재검점하고 선제적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등을 통해 대외리스크에 대비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 현상 지속가능성이 금융시장과 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 중이다.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장안정과 원활한 자금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대주단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진행할 경우 은행의 원활한 자금공급 등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금감원도 지난주부터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은행권과 개별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인센티브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민을 건 안전자산뿐…” 金에 몽칫돈 몰렸다

시중銀 골드뱅킹 잔액 6000억 돌파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
“금값 온스당 2700달러까지 오를 듯”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골드뱅킹’(금 통장)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양국의 본토를 잇달아 공격하는 등 중동 전쟁 우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계좌잔액은 전일 기준 6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513억 원 늘어난 것으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최근 1년여간 골드뱅킹 계좌 잔액 합산치는 지난해 6월(4884억 원), 7월(4876억 원)을 제외하고 50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골드뱅킹 통장 계좌 수도 꾸준히 늘어



나는 추세다. 3개 은행의 금 통장 계좌 수는 지난해 12월 25만945개에서 지난달 25만5000개를 넘어섰고, 전일 기준 25만6136개까지 확대됐다.

골드뱅킹은 일정액을 통장에 예치하면 은행은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을 사서 해당 금액만큼의 금을 계좌에 적립해준다. 실물이 오고 가진 않지만, 금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도 없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보복할 것이

란 전망이 나오는 등 중동전쟁이 우려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여파로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골드뱅킹’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

실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던 12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장중에 온스당 2431.52달러를 찍는 등 처음으로 2400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2344.3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금 가격은 전장 대비 0.45% 오른

2355달러였다. 금값은 지난달 4일 21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이달 3일 2300달러 선까지 올라섰다.

국내 금 가격도 오름세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일 대비 3.12% 높은 10만7146원 선까지 올랐다. 최고치는 지난 12일 장중 기록한 10만7580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금 시세가 당분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 기준 금 가격이 온스당 27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더불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역시 금값 전망치를 기존 2250달러에서 2500달러로 높여 잡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동발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헤지(위험회피)를 모색하면서 골드뱅킹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 금값은 당분간 계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실적부진에 노사갈등 ‘진통’까지… 몸살 앓는 카드업계

업황악화에 갈등의 골 깊어져

현대카드, 작년 동기순익 4.3% ↑
임단협 7차 교섭까지 점점 못찾아
당기순익 45% 감소한 우리카드
극적 타결로 노조 총파업 철회
신한·하나도 인상 가까스로 합의
고금리·상생금융 압박 부담으로
연체율·부실채권 비중도 급증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쪼그라든 카드업계가 노사 간 갈등으로 뒤숭숭하다. 지난해 상·하위권 카드사 실적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금리 부담 등 영업 여건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 의견차를 좁히며 갈등의 실마리를 푼 곳도 있지만 협상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곳도 있어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주 7차 임단협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과 보수체계 개편안의 차이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26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4.3% 증가했다.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중 유일하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현대카드는 10차까지 이어진 장기 협상을 통해 평균 7.5% 임금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동조합 현대카드 지부장은 “성과급 관련 내용은 비교섭 대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며 임금협상과 복리후생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총파업 위기까지 갔던 우리카드 노조는 지난달 29일 겨우 줄다리기를 마쳤다. 우리카드 노조는 △기존 성과급 100%에서 115%로 상향 △사기진작금 100만 원 지원 △총액 임금 2%



리·하나·비씨) 중 유일하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현대카드는 10차까지 이어진 장기 협상을 통해 평균 7.5% 임금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동조합 현대카드 지부장은 “성과급 관련 내용은 비교섭 대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며 임금협상과 복리후생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총파업 위기까지 갔던 우리카드 노조는 지난달 29일 겨우 줄다리기를 마쳤다. 우리카드 노조는 △기존 성과급 100%에서 115%로 상향 △사기진작금 100만 원 지원 △총액 임금 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7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카드 노조는 사측과 20번 넘게 교섭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극적 타결로 우리카드 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20억 원으로 전년(2050억 원) 대비 45.3% 감소했다. 실적 부진 속에서 퇴직 조건 등 직원들 처우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한 배경이다.

다른 카드사의 상황도 비슷하다. 하나카

드 노사도 임단협으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을 놓고 이견을 내 놓으며 협상이 장기화된 것이다. 하나카드 2023년도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 임금인상률 2%로 확정됐다. 2022년도 성과급인 200% 대비 반토막이 났다.

업계 1위 신한카드도 노사갈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협상 초기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7%대를 제시했지만 11번이 넘는 협상 끝에 2.5% 수준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카드업계 불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보다 크

게 줄어들었다. 고금리와 함께 상생금융 압박이 은행권을 넘어 카드사에도 번지고 있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카드업계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조달금리가 급등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전년 말(1.21%)보다 0.42%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사의 부실채권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해말 기준 카드사의 고정이하연비율은 1.14%로 전년 말보다 0.29%p 늘었다. 이는 카드 사용액 증가로 할부수수료 7569억 원, 가맹점수수료 5968억 원, 이자수의 2521억 원이 늘었지만 대손비용 1조1505억 원, 이자비용 1조1231억 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업황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며 “다만 순이익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업황을 핑계로 직원들의 임금을 낮출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카드사 측 관계자는 “성과급 논란 등 임직원 보수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측이 직원들의 성과급 인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원 기자 jsw@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50만장 기념식에서 정상혁(맨오른쪽) 신한은행장, 문동권(맨왼쪽) 신한카드사장이 50만번째 고객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 솔 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50만장 돌파

뉴진스 메시지 카드 등 경품 이벤트
신한은행은 ‘신한 솔(SOL)트래블 체크카드’가 출시 2개월여 만에 50만 장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50만 장 발급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환전

잔액을 원화환산 10만 원 이상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경품은 △‘뉴진스’ 한정판 메시지 카드 1만 장 △마이신한포인트 여행경비 지원(500만 포인트 1명, 300만 포인트 2명, 10만 포인트 200명)이며 오는 6월 15일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우리銀, 홍콩ELS 손실고객 2명 자율배상

첫 만기도래 나홀만에 지급
우리은행이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12일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 계좌 40건 가운데 10건

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배상 비율 동의를 얻었다. 이 중 2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이날 완료했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는 손실률이 46.41%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고객별 배상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2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하영 기자 haha@

JB금융 김기홍 회장·경영진 자사주 4.5만株 매입

金 회장, 14만500주 보유
“책임경영·주주 가치 제고”

김기홍(사진) JB금융지주 회장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향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다져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16일 J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매입한 주식은 총 4만5708주에 달한다. 매입 금액은 5억 9000여만 원이다. 이번 매입은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됐



다.

특히 김 회장은 2만 주를 추가로 확보, 현재까지 총 14만 5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발행 주식의 0.07%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이번 매입으로 4월 기준 KB·신한·하나·우리·BNK·DGB·JB금융 등 상장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김 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매입을 단행했다.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들인 JB금융 경영진들도 이번 매입으로 총 26만 703주를 보유하게 됐다.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JB금융의 실적 호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JB금융 관계자는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향상에 대한 의지”라며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보험 팔면서 카드 모집인 자격까지…

롯데손보 설계사 겸업 허용

“설계사 추가 소득 창출 기회”

앞으로 롯데손해보험 설계사는 롯데카드도 팔 수 있게 된다.

롯데손보는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고 카드 모집인 자격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손보는 자사 위촉 설계사(LP)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카드 모집인 겸업을 원하는 설계사는

롯데손보의 신개념 영업 지원 플랫폼 ‘윈더’ 애플리케이션(앱)에 링크된 여신금융협회의 동영상 교육 수강만 마치면, 다음 날 오후 4시부터 카드판매를 할 수 있다.

카드 모집인을 겸업할 수 있는 롯데손보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주요 상품은 △자사 자동차 보험을 보유한 고객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로카(LOCA) 100 라이프’ △다양한 생활업종 할인 혜택을 받는 ‘로카365’ △개인사업자 맞춤형 카드인 ‘로카 머니 비즈니스’ 등 3가

지다.

특히 롯데손보는 자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담긴 ‘로카 100 라이프’ 카드를 판매할 때 설계사들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카드 모집인 겸업 설계사는 ‘로카 100 라이프’의 △카드발급 건수 △보험료 자동 납부 건수 △카드 이용료 규모(월 기준) 등 성과에 따라 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카드를 판매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설계사뿐 아니라 자사 보험 고객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상품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

“달러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락베팅 투자자 ‘발동동’

강달러에 인버스 투자자 손실 눈덩이
코덱스美달러선물곱버스 올 -15.3%
달러레버리지ETF·ETN 플러스 수익

직장인 정모(36) 씨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달러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오르자 ‘달러 약세’에 베팅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달러값은 치솟았다. 투자금은 1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정 씨는 “시장이 이렇게 바뀔 줄 꿈에도 몰랐다”며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달러 ‘몸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인버스(inverse·역방향)’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를 이달에만 29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연 초로 기간을 넓혀보면 659억 원을 끌어담았다. ‘2X’란 이름처럼 달러 가치가 1% 내리면 2% 수익이나 는 일명 ‘곱버스(곱하기+인버스)’ 상품이다.

달러선물지수 수익률을 1배 역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ETF’에도 78억 원가량의 돈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중 1400원 선까지 올라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불안심리로 인

투자자별 미국달러선물 ETF 수익률
(단위 : %) ※ 기간 : 1월 2일~4월 16일

투자자	상품명	수익률
개인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15.33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7.51
기관	KOSEF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9.16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8.95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8.70

※출처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해 역외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인버스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어 나고 있다.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ETF는 연초대비 15.33% 떨어졌으며,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ETF’는 7.51% 하락했다.

‘KOSEF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ETF’와 ‘TIGER 미국달러 선물인버스2X ETF’ 등도 올 해들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반면 달러 레버리지 ETF·ETN 수익률은 일제히 플러스(+)를 보였다. 달러 가치의 움직임보다 두 배로 오르내리도록 만들어진 탓이다

달러선물지수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는 연초대비 19.16% 상승했다. 또 다른 달러 가치 연동 ETF로 꼽히는 ‘KOSEF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와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도 각각 18.95%, 18.70% 올랐다.

박상인 기자 si2020@

“장기채 ETF에 물렸는데” 美국채금리 급등에 ‘눈물’

디렉시온 데일리 20년물 3배 ETF
초고위험 상품에 1.8억弗 물렸지만
금리인하 기대 사라져 수익률 -30%

30대 직장인 B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미국이 가까운 시일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뉴스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면서다. 더욱이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3배 레버리지 상품에 2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석 달 새 20%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 B씨는 “시장 금리(채권 금리)가 하락해서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커녕 인상될 분위기”라며 “시장보다 앞서 판단해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잠 못 드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있다. 과감히 ‘금리 하락’에 베팅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ETF·TMF)’를 1억8398만 달러(약 2567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채로 구성된 지수(ICE US Treasury 20+ Year Bond Index)를 3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ETF(ISHA

서학개미 미국 장기채 ETF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 달러, %) ※ 기간 : 2024년 1월 2일~4월 15일

종목명	순매수결제	수익률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	1억8398만	-29.9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ETF	9615만	-9.58
아이셰어즈 7~10년 미국 국채 ETF	3779만	-4.49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RES 20+ YEAR TREASURY BOND ETF·TLT)’도 9615만 달러(약 1342억 원)어치 사들였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순매수 순위 7위와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거란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베팅은 과감했지만, 수익률은 시원치 않았다. 미국 뉴욕거래소에서 올해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는 29.9% 하락했다.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ETF도 9.58% 내렸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연준의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가 견조할 거란 점은 미 연준의 인하 조건을 훼손시키는 요인은 아닌 만큼 최근 금리 반응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여전히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시 매수 대응 전략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1분기 증시 시총 96兆 쑈... SK하이닉스 30兆 ‘최대’

삼성전자 16.7兆·셀트리온 7.8兆 뒤이어
LG엔솔 8兆 줄어 시총 최대 감소 종목에

올해 1분기 주가 상승에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를 제외한 2692개 종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시총은 1월 초 2503조 원에서 3월 말 2599조 원으로 96조 원 늘었다. 증가율은 3.8%에 달한다.

주가 상승에 연초 이후 시총이 1조 원 이상 증가한 종목은 35개였다.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월 초 103조6675억 원에서 3월 말 133조2244억 원으로 29조5568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시총은 475조1946억 원에서 491조9100억 원으로 16조7153억 원 증가했다. 이어 셀트리온(+7조7988억 원), 한미반도체(+7조960억 원), HLB(+6조8830억 원), 현대차(+6조8747억 원), KB금융(+6조4158억 원), 알테오젠(+5조6896억 원), 삼성물산(+5조4192억 원), 기아(+5조657억 원) 순이었다.

1분기에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시총은 100조5030억 원에서 92조4300억 원으로 8조730억 원 줄었다.

또 네이버(-6조5125억 원), 포스코홀딩스(-5조5817억 원), 에코프로머티(-4조7668억 원), LG화학(-3조8472억 원), 포스코퓨처엠(-3조7569억 원),

HMM(-3조3625억 원), 포스코DX(-3조1471억 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시총 1조 원을 돌파한 종목은 259개에서 263개로 늘었다. 시총 1조 원 클럽에 18개 종목이 신규 가입했고 14개 종목이 시총 1조 원 아래로 밀려났다.

주요 그룹별 우선주를 포함한 1분기 시총 변동 현황 기준으로는 삼성그룹이 연초 718조1455억 원에서 3월 말 754조5284억 원으로 36조3829억 원 증가했다.

SK그룹 시총은 179조6757억 원에서 207조7517억 원으로 28조760억 원 늘어 연초까지 2위를 지키던 LG그룹을 제쳤다.

LG그룹 시총은 190조20억 원에서 177조3129억 원으로 12조6891억 원 감소해 그룹 시총 3위로 내려갔다.

윤혜원 기자 hwyoon@

NH證, 남해군에 냉장고 54대 기부

NH투자증권은 경상남도 남해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54대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올해 첫번째 농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6개 군에 냉장고를 기부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마을회관, 경로당)의 노후화된 취사 시설을 전기레인지로 교체 지원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63대의 인덕션과 2022년부터 2년간 냉장고 총 720대를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향후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찾아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숙 기자 ssook@

LH, 비금융 공기업 최초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

2700억 규모... 원화채권比 이자 절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금융 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 원 규모(10억 브라질헤알화)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 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 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 브라질헤알화 채권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주로 발행되고 있다.

발행은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다. 통화스왑 후 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p 이상 금리가 낮아 30억 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된다.

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위험 헤지 및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해외 발행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총 7억8000만 달러(발행 환율 기준 한화 1조436억 원)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2억 달러(1조6000억 원) 규모로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국내 원화채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해외투자자 수요까지 확보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냉장고(54대) 전달식

2024. 4. 16(화) 11:30 군수실



김용기(오른쪽)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냉장고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행복이 되는
이런 집을 만드세요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이 바라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임대주택 14만호 운영]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자에게 든든한 내일

[아이 키우기 좋은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긴급급주거지원 4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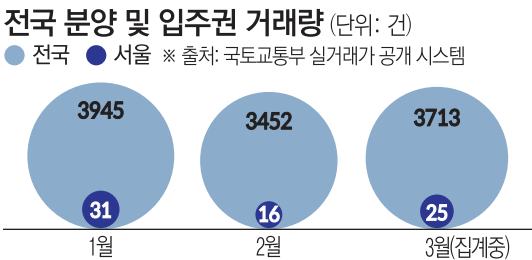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희망의 시작 뉴·홈]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나에게 맞는 집

전국 분양권 거래 느는데…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매물 적체

3월 분양권 거래 올들어 최고치 예상
수도권에선 웃돈까지 붙으며 몸값 ‘쑥’
분양가 오르며 “분양권이 오히려 싸다”
미분양 증가 따른 가격 조정 영향도



최근 전국아파트값 회복세에도 매물 적체 현상이 여전히 아파트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국 분양·입주권(분양권)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분양권 거래량이 늘면서 ‘무(無) 프리미엄’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됐던 분양권도 몸값이 뛰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3713건으로 집계 끝난 2월 거래량 3452건을 넘어섰다. 1월 거래량은 3945건을 기록했는데 3월 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면 3월 거래량은 1월 거래량을 넘어 연내 최고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회복 조짐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에선 올해 초와 달리 웃돈이 붙은 분양권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에선 1순위 마감 실패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던 ‘수원성 중흥스클래스’ 전용면적 84㎡형에 프리미엄이 1500~2000만 원 붙은 거래가 이어졌다. 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전용 84㎡형 분양권이 이달 4일 8억484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 같은 평형 분양권은 지난 2월 최저 7억7080만 원에 거래됐지만, 분양권 실거래가격이 오르면서 시세 회복세를 보였다.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전용 120㎡형 분양권 역시 지난 11일 12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1년 만에 분양가(최고 11억9950만 원)를 웃도는 가격

을 회복한 것은 그만큼 분양권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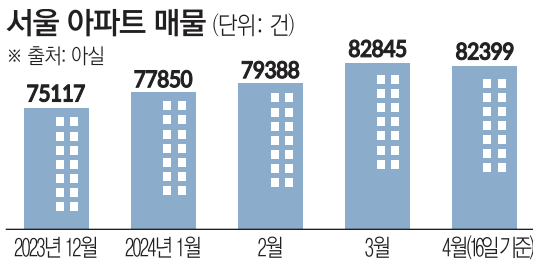
아울러 서울만 때놓고 보면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월 25건을 기록했다. 이미 2월 거래량 16건을 넘었고, 1월 거래량 31건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강동구에선 6월 입주를 앞둔 ‘강동 헤리티지자이’ 전용 45㎡형이 지난달 27일 8억3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격 7억6500만 원보다 7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또 1만2000가구 규모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용 84㎡형 기준 19억 원대에 손바뀜되는 등 고점 회복세를 보인다.

이같은 분양권 거래량 증가는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권 가격 조정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약 1858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이상 뛰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건설비용을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분양권이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한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관심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매매거래가 늘고 있지만, 역대 최대 수준인 매물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길게 늘어선 매물을 적극적으로 잡아드는 매수자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오름폭도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06%, 0.05%, 강남구는 0.02% 올랐다. 강동구(0.02%)와 용산구(0.07%), 마포구(0.07%)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방향을 바꾸면서 매매거래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3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3444건을 기록 중이다.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000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8월 4091건을 기록한 뒤 줄곧 3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1월과 2월 거래량은 각각 2456건, 2655건이다.

하지만 평균 수준인 5000~6000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아직 거래절벽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매물은 계속 쌓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399건이다. 전월 말 8만2845건과 비교하면 450건가량 줄었지만, 관련 수

아파트값 반등세에 매매 늘고 있지만
평년의 절반… ‘거래절벽’ 못 벗어나
매물은 8만건 웃돌아 역대 최대 수준
정상화 시작? “하반기는 돼야” 무게

치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작년 초 5만~6만 건 정도에서 9월 7만 건을 넘어섰고 11월 초 8만 건으로 고점을 경신한 뒤 연말 7만500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7만7850건(월말 기준), 2월 7만9388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적정 집값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시각차가 매물 적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에서 급매물이 소화된 뒤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는 매도자와 아직 비싸다고 생각하는 매수자 간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집값이 완만하게라도 우상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어 매도자가 원하는 값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은 하반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기는 오름세고 대출금리와 부동산 규제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래 정상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급해져 매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거래회복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변경안 수립 지침 시행
지역전략산업은 총량 적용 안해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월에 열린 민생토론회

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선 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신규 GB)로 지정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

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지는 기자 hje@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강북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
3개동 688가구…2030년 준공

서울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된다.

16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확

보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도로 등을 계획해 지하철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를 신설하고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00㎡ 규모의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강북 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이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



서울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투시도. 사진제공 DL이앤씨

의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노량진 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량진4구역은 지하 6층~지상 35층,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전보규 기자 jbk@

DL이앤씨 ‘e편한세상’ 전분주택 새 단장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탈바꿈”



새로운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e편한세상’ 전분주택 모형 존 모습. 사진제공 DL이앤씨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새 단장에 나선다. 주택 수요자와의 첫 대면장이자 분양 마케팅의 핵심 공간인 주택전시관을 새로운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바꿔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이달 부산 금정구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시작으로 리뉴얼 주택전시관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장한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은 고객이 자신의 주거와 삶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 방식의 연출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우선 주택전시관 모형을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의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듯 단지 모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세대존

은 전 세대 타입별 특징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각 마감재를 직접 만져보고 결정할 수 있다.

또 DL이앤씨는 주택전시관 입구부터 분양 상담을 위한 공간 곳곳에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그림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주택전시관에 들어선 고객에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감성을 전달한다. 카페테리아는 고급 호텔 로비를 닮은 인테리어로 상담 대기 시 품격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주택전시관이 단순히 분양 정보를 얻어가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향은 물론, e편한세상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존하는 자율주행 기술 모아 ‘오늘의 서비스’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미래 모빌리티 개념 중 하나는 ‘자율주행’이다. 우리는 모빌리티의 기초적 존재 이유인 ‘이동’의 책임 주체가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에 녹아들었다. 구글 알파벳의 자율주행 개발 업체 ‘웨이모’는 2021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시범 주행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로보택시 허가를 받는 등 상업용 자율주행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자율주행이 ‘서비스’의 영역으로 편입된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KM)는 웨이모의 로보택시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뿌리를 가진 만큼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최원석 KM 미래사업실 이사는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오늘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플랫폼 기능과 서비스 모델로 보완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자율주행 기술로 플랫폼 서비스

KM이 2021년부터 약 1년 간 운영한 ‘달구벌 자율차’는 회사가 지향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담고 있다. 바로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달구벌자율차는 KM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개발·운영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다. KM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카니발 5대로 달구벌자율차(택시형)와 달구벌자율차플러스(수요응답·배송 통합형) 서비스를 운영했다.

달구벌자율차는 수요응답형(DRT) 서비스다. 고정된 정류장, 고정된 노선을 지나는 버스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정류장은 고정돼 있지만 수요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 승객에게 자율주행차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센서뷰(AVV)’를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 센서뷰에는 주변 차량 배치, 제한 속도, 현재 속도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표시된다.

아울러 편안하고 즐거운 ‘이동 경험’을 위해



①자율주행차 승객이 볼 수 있는 센서뷰(AVV)
②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네모(NEMO)라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진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차량 내에 사용자경험(UX)를 고려한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했다.

최 이사는 “KM이 만든 자율주행차는 인카(In-Ca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동 중 화상 회의, 휴식,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차량 내에 구현했다”며 “승객은 자율주행차에 걸맞은 실내 이동 경험을 기대하기에 이에 발맞춰 인카 UX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비상시를 대비해 동승하는 안전운전자(자율주행매니저)가 탑승하는 만큼 안전운전자를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물류 픽업·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1년 1개월의 운영 기간 누적 호출 수는 6800건을 넘어섰다.

실제 고객들의 평가도 좋다. 최 이사는 “서비스의 쓸모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지표는 크게 이용빈도, 재이용률, 평점 등이 있다”며 “달구벌자율차 서비스의 경우 이용 빈도는 1대당 2.5~3.5건, 재이용률은 67%, 평점은 4.98(5점 만점)로 높은 효용성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충분한 수준… ‘인간의 가치’ 높이는 모빌리티 지향

최근 자율주행 업계는 완성차 기업이 관련 투자를 축소하는 등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KM은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안

알파벳 ‘웨이모’ 로보택시 시범주행
해외서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속에

약1년간 운영한 KM 달구벌자율차
사용자경험·신뢰 높여 효용성 검증

인간 가치 높이는 생산적 모빌리티
3년 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최원석
이사

전’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며 기술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KM은 단순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를 지향한다. 사람이 ‘운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최 이사는 “KM이 추구하는 방향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택배의 경우 자율주행 기술 도입으로 작업자가 이동에 드는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상·하차 등의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 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2026년부터는 PBV 활용

KM은 향후 3년 내외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율주행 서비스에 특화된 차량만 나온다면 자율주행 서비스에도 큰 발전이 기대된다.

최 이사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차, 플랫폼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며 “빠르면 2~3년 이후부터는 안전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는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M은 올해 유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026년에는 카카오T에 목적지 기반 차량(PBV)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재 기자 2mj@

〈2027년〉

17兆 황금알 낳는 거위… 전장서 활로 찾는 K-디스플레이

K-디스플레이가 전장 사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기존 주력사업이던 스마트폰과 TV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발전함에 따라 전장 산업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IDA)에 따르면 2027년엔 세계 차량 디스플레이 시장은 126억3000만 달러(약 17조4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가파른 성장 추세에 따라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

차량용 디스플레이 연평균 7.8% 성장
삼성·LG 전장 육성… 업계 새 먹거리로

가받고 있다. LG전자 전장사업은 2013년 LG전자가 전장사업본부를 신설하며 본격화했다. 수년간 적자로 ‘미운 오리’가 됐던 LG전자 전장사업은 2022년 흑자 전환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 잡았다. 올 상반기 누적 주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는 OLED와 고급형(LTPS)저온다결정실리콘) 액정표시장치(LCD)로 구성된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점유율 26.2%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도 전장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주력하며 계열사 하만을 통해 사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콧 세계 1위, 카오디오 세계 1위 등 전장부품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달리고 있는 하만은 지난해 매출 14조 3900억 원, 영업이익 1조 1700억 원을 기록했다. 하만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올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전장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대차를 포함해 페라리,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최근엔 메리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삼성전자 서초사



LG디스플레이 모델이 차량용 ‘48인치 필러투필러 LTPS LCD’와 ‘18인치 슬라이더블 OLED’로 구성된 디지털 콧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육을 찾아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 경영진과 미팅을 하기도 했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전장 사업은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으로 추적이 무서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으로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경북대 등 20곳 글로벌大 예비지정… “지역·산업계 부응”

한동·전남·순천향대 등 포함
지역사회와 일체화 노력 호평
자율전공 확대 제안… 8월 선정
이주호 “대학 혁신 속도 낼 것”

경북대, 순천향대, 한동대 등 20곳(33개교)이 2024년 글로벌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의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 혁신 노력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예비지정 평가결과 총 20곳(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모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단독 유형으로 △건양대(충남) △경남대(경남) △경북대(대구) △대구한의대(경북) △목포대(전남) △순천향대(충남) △연세대(미래캠퍼스·강원) △인제대(경남) △전남대(광주) △한남대(대전) △한동대(경북) 11곳이 선정됐다.

연합 유형으로는 △동명대·신라대(부산)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전남) △동아대·동서대(부산)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초광역) △영남대·금오공대(경북)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초광역) 6곳이 자격을 얻었다.

통합유형으로는 △원광대·원광보건대(전북) △창원대·도림거창대·도림남해대·승강기대(경남) △충남대·한밭대(대전) 3곳이다.

이 가운데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5곳은 지난해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기로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까지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에서 총 109개교의 65개 혁신기획서를 받았다. 이번에 제출된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겨 있

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을 분석,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자율전공 확대, JA(Joint Appointment·겸직) 교원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제안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글로벌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된 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북)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 차관 일부 유죄

〈해양수산부〉

‘내부 정보 취득해 보고’ 유죄
대법,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사진)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이현 기자 spes@



세월호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시민합창단이 기억합창후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초6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대법 “무죄”

“교육부 장관 권한 위임받아 진행”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국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했지만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 213개에 달하는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관리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 발행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을 임의로 작성,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가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바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백익경 기자 ekgpark@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사망 신고 안하고 양육수당 수령
대법, 2심 선고한 형량 모두 인용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는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 상습적으로 딸을 두고 외출하면서 방치했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

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는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는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와 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

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는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행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꽃 기자 pgot@

“영등포 명소 ‘안양천 맨발 황톳길’ 걸으며 건강 챙겨요”



영등포구 안양천 산책로

제방 위 산책로, 그 옆에 황톳길
마른 땅으로 조성 미끄럼 방지
신발장·세족장 등 편의시설도
올 상반기 총 600m 연장 계획

“날씨도 좋고 발에 닿는 촉감도 좋고도
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수변 힐링 공간’이
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벚꽃이 만발한
안양천 산책로 황톳길에서 최근 본지와
만나 “안양천 산책로 황톳길은 꽃으로 만
들어진 터널을 눈으로 보고, 맨발로 황토
를 느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
했다. 최 구청장은 황톳길을 걷고 있는
17개월 쌍둥이들의 손을잡으며 “벌써 황



최호권(가운데) 영등포구청장이 구민들과 함께 안양천 맨발 황톳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 영등포구

톳길 다니면 엄청 건강해지겠다”며 웃음
을 지었다.

16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는 올해
벚꽃 명소로 꼽히는 안양천 산책로에 ‘맨
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맨발 황톳길은 △
양평교에서 양평2 보도육교 방면 △양평
12 보도육교에서 목동교 방면 △오목교

에서 신정교 방면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600m 규모로 만들어졌다.

최근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한 상황에서
구민들은 봄꽃터널을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화 공간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특히 황톳길 내에는 신발장과 세족장, 먼지
떨이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됐다.

이날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왼쪽 가슴에
꽃을 단 최 구청장은 구민들의 손을 잡고
맨발로 안양천 산책로 황톳길을 걸었다.
바람에 벚꽃이 휘날리면서 장관이 펼쳐지
자 최 구청장과 구민들은 연신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최 구청장은 “안양천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인데, 제방 위에
산책로를 두고 그 옆에 황톳길을 조성하
니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다”라며 “현재
안양천 산책로는 터널 모양으로 꽃이 퍼
있는데 황톳길도 걷고 사진도 찍을 수 있
으니 구민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말했
다. 이어 “특히 어르신들이 미끄러질 위험
이 있기 때문에 황톳길을 질퍽한 땅이 아
니라 건식으로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양평동 내 한 어린이집에
서 그림 그리기 야외활동을 나온 아이들
과도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은 안양천 산
책로 데크 내 돛자리를 펴고 앉으며 스케
치북에 벚꽃, 나무, 나비 등을 그리기 시

작했다. 한 어린이는 “벚꽃 너무 좋고 예
빠요”라며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니까 좋
아요”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황톳길을 다 걸은 후 물로
발을 씻고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신발보관함에는 구민들이 황톳길을 걷기
위해 두고 간 신발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
였다. 김성수 영등포구 양평1동장은 “지
역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들도 점심
시간에 와서 황톳길을 걷는다”라며 “황톳
길이 조성된 이후로 산책로가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양천 내 조성
된 맨발 황톳길을 구간마다 200m씩 연장
할 방침이다. 현재도 안양천 외에 △신길9
구역 공원 △고추말 어린이공원 △평화 어
린이공원 △중랑어린이공원 △대림3동 현
대아파트 앞 녹지대에도 간이 황톳길이 조
성된 상태다. 앞으로 구는 문래동 공공부지
에 들어설 주민친화공간 내에도 황톳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채빈 기자 chaebi@

“일상의 작은 위험 줄인다”... 용산구, 사업계획서에 ‘안전대책’ 제도화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 강화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마련

서울 용산구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안
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제
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구
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
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
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일
상적인 작은 위험도 줄이기 위해 계획 단
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
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
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
게 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종료 후에도 계획에서 예
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해 다음 사업
에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날’ 경로잔치를 준비
하는 부서가 있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어
르신들의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이동하면
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상해를 입거나
뜨거운 음식물로 화상을 입는 경우 등 다
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
전에 제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병원
긴급 이송, 진료비 지원방법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구는 신속하게 안전관
리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재난안

전상황실 별도 설치 △모니터링 전담직원
근무체계 개선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 보
강에 힘써 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
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
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켜길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
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구로구 ‘구로애 버스킹’ 운영

올해 구로구 곳곳에서 다양한 버스킹이
펼쳐진다.

16일 구로구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구로애(愛) 버스킹’을 27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버스킹은 △가족과 함께
하는 ‘숲속에(愛) 버스킹’ △축제에 맞게
이색적으로 꾸미는 ‘축제에(愛) 버스킹’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의 여유를 전달하
는 ‘직장에(愛) 버스킹’ △넓은 공간을 활
용한 ‘광장에(愛) 버스킹’ △시민들의 지
친 일상에 위로가 되는 ‘일상에(愛) 버스
킹’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절저한 안전 관
리로 버스킹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김서영 기자 jung2@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투데이퍼낸씨 **BRAWO**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은-오프라인 전국서점 판매예정

귀촌부터 실버타운까지 40·50대 주거 가이드

dice@11pm

은퇴 후 평생 살 집

은퇴 후 평생 살 집

Class가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조주완 사장 “고성과 조직 전환의 핵심은 리더십”

LG전자 10번째 ‘CEO 편 톡’

리더십 위한 행동원칙 ‘A.C.E’
목표의 명확함·실행의 신속함
과정의 완벽함 등 3가지 제시
“모두가 담대한 도전 중요한 때”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조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0번째 ‘CEO 편 톡(F·U·N Talk)’에서 “고(高)성과 조직 전환의 핵심은 리더십”이라며 리더십을 위한 행동원칙으로 ‘에이스(A.C.E)’를 제시했다. 에이스는 ‘목표의 명확함(Aim for Clarity), 실행의 신속함(Conduct with Agility), 과정의 완벽함(Excellence in Process)’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CEO 편 톡의 첫 번째 주제를 ‘리더십’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LG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성과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수”



조주완 LG전자 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CEO 편 톡’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라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리더십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 사장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고성과 조직에 대한 의견을 듣고, LG전자가 추구하는 ‘고성과 조직’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했다.

그는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해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고성과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

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열정 그리고 목표 설정과 남다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며,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면서 고객이 인정하는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고성과 조직 전환을 위한 원동력과 추진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동참하는 조직문화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는 각자 리더십을 발휘해 ‘에이스’ 행동원칙을 실천할 때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사장은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양으로 ‘조직문화’를 꼽았다. 이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d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 중인 ‘리인벤트(REINVENT) LG전자’ 활동이 대표적이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시작했던 도전이 현재는 고성과를 창출하는 경영혁신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또 “제품·서비스 관련 사업모델·방식(Product), 일하는 방식(Process), 구성원 역량(People) 등 3가지에 집중하면서 단계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장기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기업가치 제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품·서비스 관련 사업모델·방식’의 우수 사례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구독 사업을 들었다. ‘일하는 방식’에선 고객 경험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한 공감지능(AI) 솔루션과 다양한 AI 시스템 사례를 꼽았고, ‘구성원 역량’에선 체계적인 육성체계와 회사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유한양행 ‘유한의학상’ 대상 남효석 연세대 의대 교수



왼쪽부터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석준 중앙대 의대 조교수, 남효석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찬 서울대 의대 임상조교수, 김열홍 유한양행 사장. 사진제공 유한양행

유한양행과 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57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57회 유한의학상 대상은 남효석 연세대 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젊은 의학자 상에는 석준 중앙대 의대 피부과학교실 조교수와 김영찬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임상조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인 남효석 교수는 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 후에는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기보다는 기존의 통상적인 혈압 조절이 효과적인 것을 규명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석준 조교수는 세계 최초로 가상기억 T 세포군이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에서, 김영찬 조교수는 중추신경계 경계부의 각 조직 간 장벽의 차이가 면역세포 및 감염원의 이동에 있어 경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우크라 대사, HD현대건설기계 찾아 전후 복구·테크니션 양성 방안 논의



HD현대건설기계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사진 오른쪽 두 번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일행이 16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사 글로벌교육센터를 방문해 전후 복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철근(첫 번째) HD현대건설기계 사장과 변정석 해외영업담당 상무 등 관계자들은 포노마렌코 대사 일행에게 센터를 소개하고, 전후 피해 복구에 필요한 건설기계 공급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현지 테크니션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사진제공 HD현대건설기계

신창재 의장 “페어플레이 정신 갖춘 진정한 리더 되길”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맞아 홈커밍데이 열어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유소년 종합체육대회를 40년간 후

원해온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체육활동에서 추구하는 스포츠정신이란 반칙을 하지 않고堂堂하게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 의식, 상대방·동료·코치 등 모든 참여자에 대한 존중, 힘들어도 인내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보생명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가 강조해왔던, 정직·성실한 자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존중, 실패해도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 준법



신창재(앞줄 맨 왼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꿈나무체육대회 출신 선수 및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들이 초등학생 체육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윤리경영 정신과 아주 흡사하다”며 “지난 40년간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행사를 계속 개최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40회를 맞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오는 7월부터 경북 김천과 예천, 충북 제천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성원 기자 jsw@

‘싱가포르항공 신한카드’ 명예 홍보대사 1기 위촉

신한카드는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싱가포르항공 신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팸투어 ‘호주 원정대’를 성공리에 마치고, 참여한 고객들을 명예 홍보대사 1기에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2월 싱가포르항공, 호주 퀸즐랜드주 관광청, 호주 빅토리아주 관광청과 함께 호주 여행에 동참할 ‘호주 원정



대’를 모집했다.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멜버른과 2032년 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에서 여행지 답사, 맛집 탐방, 각종 액티비티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원 기자 jsw@·사진제공 신한카드

이천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웰컴금융그룹 ‘아이봄’ 개소

웰컴금융그룹의 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이 경기도 이천시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개소한 아이봄은 경기도 최초 24시간 운영 아이돌봄 지원센터로, 경기도 이천시청 부악관 1층에 자리했다. 총 335㎡ 규모로 아동돌봄실(활동실, 학습실)과 영유아돌봄실(4~7세 키즈룸, 0~3세



베이비룸) 등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됐다. 환경교육, 금융교육 등 요일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하영 기자 haha@·사진제공 웰컴금융그룹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국가철도공단 ◇이사대우 △기획본부장 김공수 ◇본부장급 △GLOBAL본부장 윤학선 △GTX본부장 송해춘 ◇처장급 △비서실장 박원웅 △고객홍보실장 박성규 △안전본부 안전계획처장 이호룡 △철도혁신연구원 실용화연구처장 유진영 △디지털융합처장 이기만 △디지털관리처장 권유철 △기획본부 기획처장 정현숙 △경영성과처장 남희복 △재무예산처장 김경렬 △사업개발처장 유승현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장 이명석 △심사기준처장 백효순 △GTX지원단장 김창영 △사업기획처장 송권 △

고속일반처장 김음배 △철도지하화추진단장 박정일 △시설본부 시설계획처장 김현성 △철도안전협력처장 유승상 △수송계획처장 이태구 △SE본부 궤도목표처장 박진용 △건축처장 진옥수 △전철처장 전공준 △신호처장 송중수 △정보통신처장 양영민 △기지차량처장 정영수 △경영본부 인재개발처장 최윤정 △계약처장 우현구 △재산운영처장 정백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장 김태은 △시설관리처장 한승우 △신안산선사업단장 김대환 △GTX본부 경영지원처장 민병창 △시설관리처장 정종진 △GTX-A사업단장 김문수 △GTX-B사업단TF장 이창규 △GTX-C사업단TF장 차두표 △영남본부 경영지원처장 박성선 △시설관리처장 김진환 △

동해선사업단장 오재훈 △호남본부 경영지원처장 권혁 △시설관리처장 황용하 △호남고속사업단장 김종민 △충청본부 경영지원처장 이현철 △시설관리처장 홍석진 △서해선사업단장 배상호 △평택오송사업단TF장 김효두 △강원본부 경영지원처장 김호중 △시설관리처장 최영환 △중앙선사업단장 장동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본원 복합기술소재연구소 본원장 최원국 △경영지원본부장 변덕용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본부장 김재관 △자산운용본부장 박진동 △영업지원본부장 한호섭 △채권관리본부장 최대웅 △기획조정팀장 이상훈 △인재개발팀장 서상보 △경영지원팀장 김옥현 △미래전략팀장 김민

석 △법무지원팀장 직무대리 이고은

◆동양생명 ◇임원 전보 △서혜연 CCO 상무 △원진희 COO 상무 △안준영 B2B 부문장 이사대우 △이호태 BA영업본부장 이사대우 △김경원 GA영업2본부장 이사대우 ◇팀장 승진 △임기준 GA영업2팀장 △박승규 소비자보호팀장 △오예구 변액운용팀장 △송인철 연금운용팀장 △박성진 HR팀장 △이소희 투자기획팀장 △노정우 경영전략팀장 △김소영 법무팀장 △이성재 커뮤니케이션팀장 ◇팀장 전보 △박진수 GA영업1팀장 △구영석 영업관리팀장

◆SK증권 ◇관계사전출 ◇MS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창훈 △기업문화본부장 윤성필

◆레노버 글로벌 테크놀로지 코리아 △부사장 윤석준

부음

▲조남호(전 서초구청장) 씨 별세, 조승연(엠펙라이코리아 사장) 씨 부친상, 김재민(동화일렉 대표)·차용진(숙명여대 교수) 씨 장인상 = 1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40분, 02-2258-5940

▲이달호(경북 고령군의원) 씨 별세, 이상운·세련·상원 씨 부친상 = 15일,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VIP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 30분, 053-200-2501

▲이병하씨 별세, 이기택(휴메디스 생산지원실 실장) 씨 부친상 = 16일,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특실, 발인 18일, 063-855-1734

김정례 칼럼



칼럼니스트·前 부산고대 교수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이번 총선 결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의 종말’을 내세운 그의 논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상의 어떤 체제는 없으며 이를 대체할 어떤 진보적 대안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각종 사회문제는 이 체제를 미숙하게 운용하는 데 따른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거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참패한 여권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수호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

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할,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애를 서슴없이 저버리는 데 급급한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하찮은 욕망을 넘어설 용기도 없고 성취를 포기한 데 따른 일말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폐기가 없는’ 최후 인간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헤겔의 주인-노예 인정 투쟁에 뿌리를 둔 후쿠야마의 최후 인간은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한 사람이다. 따라서 폐기 없는 최후 인간이 아니라 니체의 ‘위버멘쉬’처럼 타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뛰어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인정 심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된다.

이번 총선도 인정받고 싶은 유권자의 인정 심리

‘최후인간’으로의 전략은 막아야 한다

가 어김없이 드러났다. 생계에 매인 서민들에게 여론 프리미엄으로 제시하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굵직한 공약보다는 지난 정부의 현금 살포가 자신들의 인정받고 싶은 심정에 더 다가온 것이다. 물론 이 심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작동하게 된 것은 부정 여론이 2년 내내 이어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

대통령 불통이미지 결합하며 참패

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심지어 호재가 많았던 여권 우세 지역에서도 오해를 자초한 몇몇 조치와 언행이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상하게 하여 1%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유권자의 인정 심리가 운동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심하게 왜곡된다는 것을 이번 총선이 보여주었다. 안희정, 박원순 사건의 ‘피해 호소인’ 처

럼 수원 정 야당 후보의 막말 사태는 여성 운동권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왜곡해 버렸다. 하지만 그 선거구의 무효표가 두 후보의 격차보다 2배 많았다는 점에서 막말 당사자 후보를 차악으로 보고 집권 여당을 최악으로 판단한 인정 심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은 인정 투쟁이 왜 중요한지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정권에 실망한 중도층 도움으로 신승(辛勝)했던 점을 망각하여 참패하였지만, 그나마 개헌 저지선 사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의 인정 투쟁 결과임을 새겨야 한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면서 그들의 인정 심리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은 참패를 낳은 여권의 인정 투쟁 포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하면 ‘최후 인간’이 된다. 거대 의석을 믿고 저지르는 야당 독주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사적 복수심에서 나온 수사기관의 악마화는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교묘히 외면하는 것이고, 김명수 사법부 이후 정치권 눈치 보기로 자행되는 재판 지연은 법관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한 저열한 경우다. 이처럼 비루한 경우 ‘최후 인간(The Last Man)’을 ‘인간 말종’이라고 번역한다.

‘국제표준’ 원팀코리아가 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馬牌)만큼 소중히 다룬 물건이 있다. 바로 유척(鑿尺)이다. 유척은 낫쇠로 만든 자로 곡식, 옷감 등 세금의 무게, 길이를 재는 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판별하는 기준이었다. 암행어사는 유척을 활용해 지방 수령의 세금 수탈을 방지하고 올바른 양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으로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시간이 흐른 지금, 표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현대판 유척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은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경쟁국과 혁신 역량 격차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표준외교 강화해 국제표준 공동개발 ‘속도’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표준 선점이 곧 국가 산업 주도라는 패러다임 아래 국제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총성 없는 글로벌 표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 흐름과 첨단산업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도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대표 정부 기관으로 활동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필두로 민·관·연이 굳건한 ‘원팀 코리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룰(rule)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길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표준외교, 지식적인 전문가 육성 정책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표준역량 결집을 위한 표준 리더십 포럼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산업별로 표준포럼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 국제기구 회원국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등 표준외교를 강화해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속도를 높인다.

둘째, 국제표준화기구 내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원팀 협업 등을 통해 ISO·IEC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책발언대

김 세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이사회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이끄는 국제표준 시대에 발맞춰 ISO 이사로 활동하는 필자를 비롯한 ISO 조성환 회장, IEC 이정준 이사와 기술 분야별 표준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고 표준강국 도약을 한 발짝 더 앞당길 것이다.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123차 ISO 이사회 회의가 개최됐다. 특히 표준의 디지털화, AI 기반 표준 활용방안 제시, 기후 변화에 따른 ISO 대응 및 저개발국가 표준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팀 코리아는 전 세계 국가와 함께 국제표준화 정책 수립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표준 리더십을 드높였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몸담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도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지난 58년간 축적한 시험인증 기술과 표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의료 AI,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참여해 우리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의 세계무대 진출에 ‘길잡이’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 개의 글로벌 시험인증 네트워크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를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 등 첨단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논의, 글로벌 기술규제(TBT) 대응 교류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全)방위적인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표준을 이끌 ‘원팀 코리아’는 국가위상 제고와 동시에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가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과거 부족한 천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입국을 표방하며 수출 6대 강국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쓴 것처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첨단 기술의 표준강국으로 우뚝 설 주인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한국과 일본은 국민 기질이 자주 비교된다. 가령 일본인은 신중하고 꼼꼼한 데 비해 느리고, 한국인은 성급하지만 위기 때 기민하고 융통성이 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는 이러한 한·일 국민성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미국이 탈중국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자 일본이 이를 기회로 삼아 그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파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누려왔던 반도체 최강국 지위 부활을 목표로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수립한 뒤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로 미국(0.21%)을 크게 웃돈다.

실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도록 우리나라 돈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50년 이상 묶여둔 그린 벨트 해제,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해 TSMC의 첫 일본 공장을 20개월 만에 완공시켰다. 통상 소요되는 공기를 절반가량 줄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노트북 너머

이진영

국제경제부 기자



재원에 대한 예산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도 의외다. 절차를 중시해 오히려 기회를 자주 놓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정부의 그간 이미지와는 정반대다. 반도체 부흥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겠다는 자세가 엿보인다.

반면 한국은 파격적인 보조금은 커녕 반도체 투자금 일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로 앞두고 있다. 지원금 논의는 이제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이 국가 총력전임에 따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점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특혜’, ‘산업 간 형평성 논란’ 등의 명분으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에는 글로벌 판세가 급변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반도체 강국’을 이뤄낸 한국의 기민한 기질을 지금이라도 발휘해야 한다.

mint@

이투데이, 말투데이

☆ 벤저민 프랭클린 명언

“과학서적은 새로운 것을 읽고 문학 서적은 오래된 작품을 읽어라.” 미국 철학협회의 창립과 피뢰침의 발명,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잡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시간 관리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계발, 선하고 덕 있는 삶을 통해 행복에 이르게 했던 그의 가르침은 ‘성공학의 원점’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706~1790.

☆ 고사성어 / 공심위상(攻心爲上)

상대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 군사력보다 마음으로 싸워 적의 투지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양양기(襄陽記)에서 유래했다. 축한의 제갈량이 남만을 정복하려 할 때 마속이

한 말이다. “용병의 대원칙은 적의 마음을 치는 것이 상책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며, 마음으로 싸우는 심리전이 상책이고 군사로 싸우는 전투는 하책입니다[夫用兵之道 攻心爲上 攻城爲下 心戰爲上 兵戰爲下].” 마속은 촉이 남쪽의 소수민족 지역을 정벌하는 데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유화 정책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 시사상식 / 디제라티(digerati)

디지털시대에서 엘리트로 떠오르고 있는 신지식인들. 디지털(digital)과 지식계급(literati)의 합성어다. 디지털 변혁을 이끄는 정보화시대의 새 지배계층을 뜻한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아우르며 제3의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갖춘 새로운 권력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아세안(ASEAN)+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가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2.5% 상승률을 예상했다.

한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쳤다지만, 불안 그 자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대 국가점단전략산업(6대 첨단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13.0%→9.4%), 이차전지(12.7%→7.6%) 수출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4년 새 한국 반도체 수출은 1293억 달러에서 1285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대만은 1110억 달러에서 2107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미·중 틈바구니에서, 또 일본·대만과의 시장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답을 찾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차전지 수출도 한국이 72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148억 달러에서 572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나라 밖 소식도 우울하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웃돌았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2월(3.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확연 양상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덕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며 금융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쓰나미 같은 압승에 놀란 승자를 축하하고 해체 위기에 몰린 패자를 마냥 위로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진영 대결은 더 심화되고 지역주의가 부활한 총선 결과를 보며 희망과 기대보다 우려와 과제가 앞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총선 결과를 볼 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남은 3년간 경제 회복에 ‘다걸기’를 하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총선 완패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데스크 서약

김 문 호
부국장 겸 자본시장부장



기다릴 수만도 없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라며, 기업들을 등 떠미는 것은 한계다. 자본시장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실제 주식시장 활황은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하다. 외환위기 직후 증시의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인 2000년대 초반 증시의 소비 활성화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한국사회는 인구구조 고령화·디지털화·기후변화 등 도전도 맞았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본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얘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 구조조정에서의 역할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금리와 각국의 패권경쟁으로 많은 기업이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 금융

연구원에 따르면 부도 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의 부채는 최근 4년 새 2.3배로 불었다.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갸통대출’은 지난해만 29% 급증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부가 5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는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야당의 힘은 세졌고, 여권의 정권 주도 능력은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선거는 계속되고 민심은 늘 요동치는 법이다. 당장 우리 앞에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망가진 삶을 치유하고 후폭풍을 극복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정치권이 손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kmh@

수출경쟁력 지속적 하락 우려수준

총선참패로 정부 동력마저 약화돼

증시활성화로 경제 돌파구 찾아야

진료실 풍경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편지 몇 장을 발견했다. 알록달록하고 예쁜 종이 위에 적힌 정성이 담긴 아내의 글. 잠깐 정리를 멈추고 편지를 읽는 내내 풋풋한 연애 시절이 떠오르며 당시의 설레던 마음이 다시 느껴졌다.

요즘엔 우리 주변에서 손편지를 구경하기 쉽지 않다. 며칠 동안 답장을 기다려야 하는 편지 대신 초고속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카톡이나 이메일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하지만 때론 여유와 낭만이 사라진 차가운 세상에 편지가 부활한다면 조금은 파스해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편지가 사라져 버린 요즘이지만 병원에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남아있다. 진료의뢰서가 그것이다. 병명과 진료과정이 담긴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곳엔 예전 편지에 녹아있던 그 마음이 담긴다.

오랫동안 진찰했던 환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의뢰서에 그분들과 공유했던 기쁨, 슬픔, 아쉬

깊어가는 봄날의 편지 한 통

움과 애처로움 등을 담고 마지막엔 꼭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이란 끈끈한 풀로 봉투를 봉인한다. 답장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며칠의 시간, 때론 좋지 않은 결과에 눈물짓게도, 또 회복되고 완치된 결과에 기쁨을 얻게도 되는 그 하나하나의 편지들.

오늘도 진료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다. 진행된 암 때문에 몇 주 전 고민과 걱정을 한 가득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개봉한 봉투 안에는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좋아진 환자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었다. 케모포트 관리를 부탁한다는 추신이 덧붙여져서.

이제 조금은 덜 아프길, 긴 그 길의 끝에 완치의 소식이 전해지길. 소원하는 동안 파스한 햇살 한 줄이 펼쳐진 편지 지 위에 스며든다. 어느덧 깊어 가는 봄날,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나타날 그 환자가 벌써 기다려진다.

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장·내과전문의

사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안전띠 매야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400원을 터치했다.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외환당국 구두개입으로 전 거래일 증가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지만 향후 장세는 예단할 수 없다. 달러의 과도한 강세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를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주식시장도 심상치 않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에 거래 마감됐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난폭하게 흔들고 있다. 경제가 필요한 것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같은 국제 지정학적 변수만이 아니다. 국제금융 부문에서부터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난기류가 몰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담담할 길이 없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것은 예상일이 아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에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경고성 시나리오가 나왔다. UBS의 새 시나리오가 이렇다. UBS는 앞서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을 2.75%포인트(p)로 제시했던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그 이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번 바뀌었다. 첫 번째는 인하 폭을 0.5%p로 확 줄인 수정 전망이다. 이번은 두 번째다. 아예 인상 쪽에 베팅했다. 충격파가 없을 수 없다.

UBS의 ‘노 랜덤’(추가 금리 상승) 예측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토대로 한다.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

비 0.7% 증가한 7096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달 비농업 일자리는 12개월 월평균 증가 폭을 훌쩍 뛰어넘은 30만 3000건 증가했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5.50%로 동결하다 근래 들어 인하 시기를 엿봤다. 한때 ‘연내 3번 인하’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이렇듯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 금리 인하의 명분은 없어진다.

최근 연준 안팎의 고위급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도 달라졌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지정학적 위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내에 미국 금리가 8%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미국과는 경제 체급이 다르다. 지금도 역대 최대치인 한미간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전에 없이 위험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상 최대인 가계·기업 부채는 줄어줄 기미가 없고,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국면에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은 금물이다. 경제 전반을 투명하게 재점검하고 비상대응 전략을 마련할 일이다. 안전띠도 단단히 매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불확실성의 난기류에 맞서야 할 비상한 시기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

플러자

권 상 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놓은 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영상중독 현상이 나타나며 비판적 사고, 문해력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린 기현상이다.

책을 읽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또 중요한지 질문하는 이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Teaching of Psychology(교수법 심리학)’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이 게재되었다. 해당 논문에서 연구자는 집단을 두 개로 분류, 과학기사를 각각 나눠준 후 한 집단은 기사를 읽게 했고 다른 집단은 기사를 듣게 한 후 시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기사를 들은 집단의 시험 점수는 60점 미만에 그쳤고 기사를 직접 읽은 집단은 평균 80점을 초과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독서 소홀하면 분석력·창의력 떨어지

책을 멀리한다는 건 문자를 기피하고 영상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다. 영상 정보가 넘쳐나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뒤덮고 있고 편 가르기 등 갈라치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 영상콘텐츠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서 듣기에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독서가 필요한 이유다.

역설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콘텐츠기업은 최근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독서량,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서적 등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지원자의 창의력이 떨어지기에 학교 현장에서라도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키워달라고 기업 임원들은 하소연한다. 가벼운 책이라도 시작해보자. 책을 읽는 이만이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AI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